

에이버리 린 - '진선인(眞·善·忍)'의 원칙에 따라
수련해 온 한 승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함

속세로



ENTERING THE WORLD

入世間

평생의 방랑, 영혼의 귀향

속세로

(ENTERING THE WORLD)

평생의 방랑, 영혼의 귀향

저자: 에이버리 린 (Avery Lin)

한 중국 승려의 구술에 따라 집필된 이 책은, 고대 중국의
원리인 “진(眞), 선(善), 인(忍)”을 바탕으로 한 수련법을
성실히 닦아온 한 수행자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2025 THE LIVES MEDIA. 모든 권리 보유.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편집부의 메모

이 책은 실제 이야기, 사건,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 및 특정 식별 가능한 세부 사항은 문학적인 형식으로 수정, 축약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책에 담긴 일부 장면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서술되며, 이는 그들이 해당 시점에서 느끼고 체험한 바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반드시 THE LIVES MEDIA 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체 측면에서 편집부는 필요한 교정을 했지만, 원래 인물의 생생한 목소리와 담백한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이야기의 본래 어투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 편집부



서문

이 책에 담긴 이야기들은, 늦은 오후 뉴욕 외곽의 한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집에서 나눈 대화 속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저와 마주 앉은 분은 일흔을 훌쩍 넘긴 수행자 마창성(마창성) 어르신. 식어가는 다기 옆에서, 저무는 햇살과 함께 흘러나오던 그분의 음성은 고승의 설법이 아니라, 세월의 풍파를 지나온 한 사람의 조용하고 꾸밈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의 역할은 단지 한 명의 ‘청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극적인 전개를 좇는 인터뷰어가 아니라, 그저 운 좋게 그 자리에 함께해 앉아, 한 인생의 여정을 조용히 받아 적을 수 있었던 후배일 뿐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반세기를 넘는 세월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 현대사의 격동 속에서 출발해, 아시아 전역을 떠도는 30 여년의 수행 길을 지나,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마침내 마음의 귀향을 찾기까지—그 속에는 신비로움이 감도는 순간도 있었고, 참담한 고통의 기억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일관되게 흐르고 있던 것은, 설명하기 힘든 평온함이었습니다.

마창성 어르신 이야기는 단순한 회고록이 아닙니다. 제게는 그것이야말로 ‘믿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사람을 이끌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게 만드느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소중한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조심스럽게 엮어, 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이 조용한 이야기의 흐름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버리 린 (Avery Lin)

첫째 날

에이버리 린 (Avery Lin):

마 아저씨, 오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아저씨의 삶에 대해, 도
를 구하는 여정에서 겪으신 체험들에 대해, 속세에서 수련

을 실천하신 이야기와 아저씨만의 깨달음이나 통찰에 대해 들으러 왔어요.

마창성 (Ma Changsheng):

(마 아저씨는 에이버리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눈빛으로 말한다.)

그래, 에이버리. 나도 너를 다시 만나니 기쁘구나. 응, 약속한 대로 이리 앉아. 함께 이야기 나누자꾸나. 내 이야기는 대단한 건 없단다. 그저 내가 겪어온 것들, 보고 느끼고 되새긴 것들이지. 네가 듣고 싶다면, 나는 기꺼이 들려줄게.

(마 아저씨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찻잔을 소리 없이 접시 위에 내려놓는다. 그 소리는 조용한 집 안 공기 속에 은은하게 퍼져나간다.)

뿌리에 대해 말하자면,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단다, 에이버리야. 나는 1949 년에 광둥에서 태어났어. 그 시절, 나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 우리 부모님은 열성적인 공산당원들이었고, 혁명 이념을 굳게 믿고 있었어. 정치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지. 당연히 나도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받았단다. 어릴 적부터, 당이 약속하는 밝은 미래에 대한 노래들과 구호들이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지.

그런데 말이지, 우리 집안 안에는 또 다른 흐름이 있었던
다. 우리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어. 세상과 거리
를 두고, 조용하고 청렴한 삶을 좋아하셨지. 도덕경과 유
가 경전을 몹시 좋아하셨고 말이야. 내 이름 ‘마창성’도 바
로 그분이 지어주신 거야. 어릴 적엔 그 이름에 담긴 뜻을
다 알 수 없었지만, 그분 나름의 어떤 바람이 담겨 있었겠
지.

할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시대 상황에 대해 부모님과 논쟁
하는 일도 없으셨단다. 하지만 그분의 조용한 삶의 방식과
가끔 내뱉는 깊이 있는 말씀들이 마치 담비처럼 내 마음속
에 스며들어, 모르게 나에게 영향을 주었지.

시간은 흘러, 1966 년이 되었고, 그땐 내가 열일곱이었단
다. 바로 그 해에 ‘문화대혁명’이라는 운동이 격렬하게 일
어났지. 젊은 시절에는 그런 거대한 외침에 휘말리기 쉬운
법이지. 나도 예외가 아니었고, 열정적으로 공산주의 청년
단에 가입해서 “사구타파” 운동—즉 낡고 구시대적인 것
으로 여겨지는 전통이나 문화를 부수는 일에 참여했어.
그땐 정말 믿었지. 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
고 있다고 말이야. 예휴, 젊다는 건 그렇게도 순진하고, 생
각이 얕을 수 있는 거란다.

(마 아저씨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석양이 나뭇가지 위로 물들어가는 창밖을 바라본다.)

에이버리 린:

네, 저도 그 “대문화혁명”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역사책에서 읽어봤어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때는 공산주의 청년단의 일원으로서, 나중에 후회하신 어떤 일을 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마창성:

(마 아저씨는 한동안 침묵하며, 먼 곳을 바라본다. 그 눈빛 속엔 즐겁지 않은 기억들이 떠오르는 듯했고, 세월의 흔적이 깃든 얼굴엔 슬픔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있지, 있단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속이 쓰라려지는 일들이 있어.

그때의 그 눈먼 열정, 그 화려한 구호들에 순진하게 빠져든 믿음이… 나를, 그리고 당시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잘못된 행동으로 몰고 갔지.

(마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결 낮아진 목소리로 이어간다.)

그 시절엔 “사구타파(四舊打破)”의 분위기가 극에 달했단다. 사람들은 절이나 사당, 조상들의 문화유산을 미신이자 쓰레기로 간주하고, 그것들을 부숴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여겼지. 나도 그 소용돌이에 휘말렸어.

어느 날, 청년단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마을 근처 산기슭에 있는 한 오래된 절을 “처리”하라는 임무를 받았어. 그 절은 아주 오래되었고, 고풍스러운 건축물에 이끼까지 끼어 있었지. 하지만 그때 내 머릿속엔 오직 하나뿐이었어. "이건 봉건 사회의 잔재야. 반드시 부숴야 해!"

우린 구호를 외치며, 부처상을 때려 부수고, 제단을 밀어 넘어뜨렸지.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 제기들이 산산이 깨지는 소리... 지금도 그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라. 그때 난 마치 뭔가 ‘혁명적인’이고 ‘진보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피가 끓는 듯한 흥분을 느꼈단다.

(마 아저씨의 목소리가 잠시 메이고, 그는 눈을 감으며 떠오르는 기억을 억누르려는 듯했다.)

그러다 결국 일이 벌어졌지.

마지막 기와를 떼어내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가던 중, 썩은 큰 나무 기둥 하나가 갑자기 무너져 내려와, 내 머리를 정통으로 내리쳤다.

순간 날카로운 고통이 번쩍였고, 시야가 깜깜해지면서 그 대로 정신을 잃었어...

지금 돌아보면, 어쩌면 그건 즉각적인 인과응보였을지도 몰라, 에이버리야.

그릇된 일을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거든.

그 절을 부순 그 날의 행동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남아 있어.

내가 한때 얼마나 길을 잃고 있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그런 상흔이 되었지.

에이버리 린:

그 장면들... 정말 가슴 아프네요. 한 세대 전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전통적 가치들이 사라지면서 그 여파는 지금 세대까지도 이어졌으니까요...

그때 아저씨가 나무에 맞아 기절하신 일은, 수련이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즉각적인 업보(果報)” 같아요...

그 일을 계기로 바로 멈추거나, 뭔가 깨달음이 있으셨나요?

마창성:

(마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한다.)

그래, 네 말이 맞단다. 그 넘어짐, 그 나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건 전혀 알지 못했던, 믿지도 않았던 또 다른 세계로부터 온 개입이었단다.

삶의 큰 전환점이었지.

그때 나는 무려 사흘 동안 의식을 잃었단다, 에이버리야.

가족들과 친구들은 아마도 무척 걱정했을 거야.

그 사흘 동안 바깥세상은 전혀 몰랐고, 그저 깊은 혼수 상태 속에서 아주 이상한 체험을 했지.

정말 또렷하고 생생해서, 지금까지도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선명히 남아 있어.

(마 아저씨는 창밖을 바라보듯 허공을 응시하며, 눈빛이 조용히 먼 곳을 향한다.)

그 꿈속에서 나는 아주 어둡고 차가운 곳에 있었단다.

그런데 갑자기 부드러운 빛이 나타났고, 그 빛 속에서 한 고승이 나타나셨어.

짙은 황금빛 가사를 입은 그분은 인자하면서도 위엄 있는

얼굴을 하고 계셨어.

그분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셨고, 그 시선은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는 듯했지.

그분은 말을 많이 하시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며 내 무지한 의식을 깨우셨어.

그분은 나와 그 무리들이 절을 부순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분명히 지적하셨어.

신과 부처가 머무는 신성한 장소를 파괴하는 건, 곧 신을 모욕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면 무거운 업을 짓게 되고, 만약 진심으로 참회하지 않으면 장차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공포에 휩싸였단다, 에이버리야.

지옥에서 받게 될 형벌의 그림이 떠오르며, 몸 전체가 얼어붙는 듯한 두려움이 밀려왔어.

하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형언할 수 없는 후회였지.

그제야 나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길을 따라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단다.

나는 꿈속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히 그 고승에게 자비를 구했어.

제발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고.

(마 아저씨의 목소리는 잠시 떨리고, 그 순간을 떠올리는
듯 감정이 살짝 흔들린다.)

내가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고, 그 고승은 목소리를
조금 누그러뜨리셨지.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아직 선한 마음씨가 남아 있고, 회개의 뜻이 있으니
내가 한 길을 알려주겠다.

당장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공산당의 길을 완전히 떠나라.
출가하여 도를 구하고, 진정한 ‘진리(眞法)’를 찾아 업을
씻어라.

하지만 명심해라. 어느 한 절에 머무르며 편안히 지내서는
안 된다.

네 스스로 사방을 떠돌며,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법을 찾
아야 한다.

이 여정은 매우 험난하고 길 것이며, 이는 네 업을 갚는 과
정이자,

네 정성과 결의가 진실한지를 시험하는 수행의 길이 될 것
이다."

그 말을 끝으로 고승의 모습은 서서히 흐려지며 사라졌단
다.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천천히 눈을 떴지.

눈을 뜨자 병원 침대 위였고, 가족들이 옆에 있었어.

그 순간 나는 확신했지.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내 인생을 뒤바꿔 놓을 운명의 메시지였다고.

그리고 나는 알았어.

이제 내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에이버리 린:

아, 수련자의 시각에서 보면... 그건 정말 명확한 “깨우침”이었네요. 그럼 그때 바로 실행에 옮기셨나요? 아저씨의 가족은 그 결정을 지지해주셨나요?

마창성:

(마 아저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다.)

그래, 맞다. 그건 더 이상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 그건 거부할 수 없는 깨우침이자, 부름이었지. 눈을 뜨고 나서도 고승의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맑고 강하게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은 내 의식을 완전히 깨워주었지. 머리에 남은 상처의 통증조차 희미해졌고, 대신 가슴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했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었던단다.

몸이 겨우 회복되자마자, 나는 부모님께 내 결심을 말씀드렸어. 나는 출가할 거라고, 그분들이 정해진 길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이야.

(마 아저씨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눈에 그늘이 스친다.) 부모님의 반응은… 매우 격렬했단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 평생을 공산주의 이념에 바쳐온 분들에게, 외아들이 갑자기 출가하겠다고 “미신” 같은 것들을 믿겠다고 말하는 건, 그분들 입장에선 참을 수 없는 수치이자, 배신이었을 거야. 그분들은 내가 떨어져 다쳐서 정신이 이상해졌거나, 누군가에게 속은 거라고 생각하셨지. 화를 내고, 헐박하고, 심지어는 매질까지 하셨어. 생각을 바꾸라고, 그런 길을 간다면 다시는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이야. 돌아오지도 말라고. 물론 속으론 나를 여전히 아끼고, 다시 돌아오길 바라셨겠지만… 그분들이 믿어온 이념은, 그 사랑마저도 가려버릴 만큼 거대했단다.

그때 나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 하지만 내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단다. 고승의 말씀이, 부서진 절의 기억이, 내가 저지른 업들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이끌었어. 가야 한다고, 해탈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야.

그 격렬한 갈등 속에서, 오직 할아버지만은 나를 말리지 않으셨어. 그분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시며, 어딘가 모든

걸 이해한 듯한 눈빛을 보내셨어. 그리고 아무 말씀 없이 방으로 들어가 낡고 닳은 『도덕경』 한 권을 내어주셨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이 책 하나뿐이란단다. 꼭 간직하거라.” 그 책은 지금까지도 내가 늘 간직하고 있어. 내게 주신 조용한 응원이자, 가장 깊은 격려였지.

그리고 그렇게, 1967 년 어느 이른 새벽, 하늘도 아직 밝지 않은 시간에 나는 집을 떠났단다. 손엔 『도덕경』 과 낡은 옷 몇 벌뿐. 나는 외진 산사 하나를 찾아갔어. 거기서 모든 사정을 솔직히 말씀드렸지.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어떻게든 도를 찾아 속죄하고자 결심했는지를. 그 말을 들은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 그 눈빛엔 깊은 자비와 이해가 담겨 있었지.

그분은 내게 삭발을 해주셨고, ‘사방을 유랑하며 긴 여정을 떠나야 한다’는 내 다짐을 들으시고 내게 법명을 주셨단다. 그 이름은 바로 석창성(釋長行).

절에서 얻은 낡은 갈색 가사 한 벌을 입고, 그날부터 나는 떠돌이 수행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어. 도를 찾겠다는 서원을 안고 말이지. 그 순간, 과거의 마창성은 죽고, 이제 남은 건 도를 찾아 떠도는 이름 없는 한 나그네뿐이었지. 그 여

정의 끝이 어디인지, 언제 도달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지만 말이야.

부모님은... 그 이후로 나는 감히 다시 찾아뵙지 못했어. 그분들 마음을 더 아프게 할까 두려웠고, 내 결심이 흔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지.

에이버리 린:

정말 결단력 있고 용기 있는 선택이네요... 솔직히 말하면, 그 상황이 저라면—아직 수련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과연 그렇게 용감하게 결심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출가하고 나서 초반에는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혹시 친구들에게 조롱당하거나, 정부 쪽에서 괴롭힘을 당하시진 않았는지요...

마창성:

(마 아저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입가에 씩씩한 미소가 스친다.)

결심 자체는 단호했지, 에이버리야. 하지만 그 길은 너무도 어둡고 험난했단다. 그 당시 나는 그저 ‘가야 한다’, ‘고승이 말한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막연한 믿음 하나만 있

었을 뿐이었어. 수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고, 단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강한 직감과 그 약속 하나에 의지하고 있었지.

집을 떠나 처음으로 갈색 가사를 입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건 참으로 큰 시련들이었어. 제일 먼저 찾아온 건 외로움이었지. 가족도, 친구도, 나를 지지해주는 동지도 없이 갑자기 혼자가 된 거야. 원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상을 외치던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길거리에서 자고, 낮선 절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리며 밤을 보내야 했거든. 집이 그림고, 부모님이 그림고, 비록 그때가 잘못된 길이었다 해도 함께 외치던 그 시절의 친구들이 그리워지는 순간들이 끊임없이 밀려왔어.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지. 당시엔 문화대혁명의 열기가 여전히 뜨거웠단다. 젊은이라면 생산에 뛰어 들고, 혁명에 헌신해야 한다고 여겨졌어. 그런데 머리를 민 채 가사만 입고 떠돌며 탁발하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수군거렸어.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심지어는 ‘게으름뱅이’, ‘노동을 회피하는 반동분자’라고 손가락질했지.

예전 친구들은 더 이상 나를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 함께 구호를 외쳤던 사람들인데도, 이제는 나를 피하거나 비웃

었지.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기도 했고, ‘도에 미쳐서 이상해졌다’고도 했어. 그런 말들, 처음엔 마음이 아프고 외로웠단다. 하지만 곧 고승의 당부를 떠올렸지. 내가 저지른 업보를 갚아야 한다는 걸 생각하며, 그런 말들도 수련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흔들림 없이 버티자고 스스로 다짐했단다.

정부 쪽에서는 다행히도 초반엔 큰 간섭을 받진 않았어. 아마도 내가 혼자였고, 외딴 시골 지역만 돌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던 거겠지. 혹은 미친 사람쯤으로 여기고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시대 특유의 긴장감, ‘혁명 흐름을 거스르는 자’에 대한 경계심은 늘 공기 중에 떠 있었단다. 그래서 늘 말을 조심했고, 사람 많은 곳은 피했고, 괜한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은 만들지 않으려 신경을 많이 썼지.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따로 있었어. 바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었지.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 특히 굶주리고, 병들고, 추위에 시달릴 때는 그런 생각이 더 심했지. 하지만 그런 때마다, 그 고승의 모습과 말씀들이 다시 떠올랐고, 그게 나에게 다시 힘을 줬단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주신 『도덕경』은 늘 내 곁에 있었어. 그

책에 담긴 말씀들은 내 마음속 불안과 고통을 부드럽게 씻어주는 샘물 같았지.

그렇게 하나씩, 한 걸음씩, 나는 도를 찾는 여정을 시작했어. 그 길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어디로 향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야. 그저 믿음 하나, 끝까지 가야 한다는 의지 하나만을 품고 말이지.

에이버리 린:

그럼 그때 아저씨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셨나요? 예를 들어, 큰 사찰들을 찾아간다든지, 티베트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서유기』 속 삼장법사처럼 인도로까지 가신다든지요?

마창성:

(마 아저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어딘가 회상하는 듯한 표정이다.)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하긴 어렵단다, 에이버리야. 그 당시 내 머릿속엔 그 고승의 말씀 하나뿐이었어. “스스로 사방을 유랑하며, 온 세상을 돌며 법을 찾아라.” 그분은 어느 산으로 가라거나, 어떤 절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 특히 강조하신 건 “어느 한 절에 안주하지 말라.”
는 점이었지.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가 서역으로 경을 구하러
떠난 것처럼, 처음부터 뚜렷한 목적이 있는 대장정과는 달
랐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 나는 그저 잘못을
저지른 죄인일 뿐이었고, 업을 씻기 위해 참된 진리를 찾
아야 한다는 다짐 하나만 있었단다.

처음엔 단순히 ‘일단 가보자’는 마음뿐이었어. 가다가 절
이나 도관이 보이면 들러서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어디
가 영험하다는 소문이 있거나, 숨은 고승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곳을 향해 걸었지. 어딘가에 도를 깨달은 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야.

그때 내게 유일한 나침반은 막연한 믿음이었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어떤 울림, ‘가다 보면 만나게 된다’, ‘찾
다 보면 얻게 된다’는 그 감각 하나뿐이었지. 내 짐이라고
는 할아버지가 주신 『도덕경』 한 권과, 과오를 바로잡고
자 하는 진심 하나뿐이었어. 걸으며 묻고, 걸으며 관찰하
고, 듣고. 때로는 말이야, 어떤 길이 마치 나를 부르는 것처
럼 느껴지면 그냥 그 길로 발을 디뎠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티베트에 가겠다거나 인도로 가야겠다는 명확한 계획 같은 건 전혀 없었단다. 그런 곳들은 훨씬 나중에, 긴 유랑의 여정 속에서 인연이 닿아 도착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목표로 삼았던 건 아니었어.

내 여정은 마치 흐르는 물 같았단다, 에이버리야.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좁은 틈을 만나면 스며들고, 그저 큰 바다—내가 그토록 바라는 참된 진리—를 향해 흘러가는 것이었지.

(마 아저씨는 말을 멈추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다. 창밖으로는 저녁노을이 지기 시작하며 모든 풍경을 주황빛으로 물들였고, 집 안은 더욱 고요해졌다.)

에이버리 린:

그럼 그때 아저씨의 할아버지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셨나요? 『도덕경』을 건네주신 건 알겠는데, 그 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있으셨나요? 제 생각엔, 아직 인생 경험도 적고, 교리적 기반도 없는 젊은 청년이 『도덕경』 같은 책을 읽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마창성:

(마 아저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허공 어딘가에 떠 있는 보이지 않는 책을 바라보다가 다시 에이버리를 바라 본다.)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듯이, 그분은 말이 많은 분이 아니셨어.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가르치거나 명확히 지시하는 스타일이 아니셨지. 그분은 자신의 삶, 자신의 고평함 그 자체로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셨던 분이야. 『도덕경』을 내게 건넬 때도 아무 말 없이 단 한마디만 하셨어. “나는 이 책 하나뿐이란단. 꼭 간직하거라.” 그 한마디와 그 눈빛—그건 말로 하는 어떤 교훈보다도 컸어. 그 순간 나는 느꼈지. 이 책은 나를 위한 친구이자, 앞으로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될 거라는 걸. 그게 바로 할아버지가 내게 주신 가장 큰 방향성이었어.

『도덕경』을 읽고 이해한다는 건… 네 말이 아주 정확하다. 그때 나는 겨우 열일곱, 열여덟이었고, 머릿속엔 여전히 “혁명”이 어찌고 하는 구호들만 가득했지. 방금 큰 충격을 겪은 직후였고, 불교나 도교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었어. 그런 상태에서 노자의 문장을 접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

(마 아저씨는 조용히 웃으며, 약간은 자조적인 표정을 짓는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며칠은 완전히 “병어리 앞에서 천둥 치는 느낌”이었어. 글자는 읽히는데, 무슨 뜻인지는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야. “도는 도라 할 수 있는 도가 아니다. 이름은 이름이라 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이런 구절들을 수없이 반복해 읽어도 여전히 안개 속 같았지. 너무 어렵고, 나에겐 너무 깊었어.

하지만 말이지, 그 책은 참 묘한 끌림이 있어. 다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읽게 되는 그런 힘 말이야. 길에서 잠시 쉬는 동안, 여관을 구하지 못해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있을 때, 배고픔에 지쳐 있을 때도 그 책을 꺼내 읽었어. 그건 마치 말 없는 친구처럼 내 곁에 있어 주었고, 외로움과 추위를 잊게 해주었지. 어느 순간부터는 ‘이해’하려고 애쓰는 걸 그만두고, 그냥 읽었어. 문장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놔두었지.

그리고 나중에 수많은 고난과 체험을 겪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여러 풍경들을 마주하면서, 그때는 몰랐던 구절들이 하나둘씩 마음속에서 열리기 시작했어. 예전엔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이,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겪고 나면 “아, 이거였구나” 하고 마음속에서 울림처럼 느껴지는

거야.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깊은 말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지.

예를 들어,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를 마주할 때면, 물의 부드러움과 겸손함에 대한 구절이 떠올랐고, 세상의 무상함과 변화무쌍함을 느낄 때면, ‘비상(非常)’이라는 도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어. 그렇게 해서 『도덕경』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을 비추는 거울이자 반추의 도구가 되었지.

그 책은 명확하게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 같은 건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어.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고, 흐릿하던 것을 맑게 해주는 그런 존재였지. 아마도, 그 책이 내 첫걸음을 함께한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을 거야. 할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가장 값진 인연이지.

(마 아저씨는 말을 멈춘다. 공간은 다시 고요해지고, 바깥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이며 소리를 내고 있다. 창밖으로는 해가 더 낮아져, 하루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린다.)

에이버리 린:

아저씨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손오공의 수행 여정이 떠올랐어요. 도가(道家)에서 출발해 불가(佛家)로 나아간 점이 닮았다고 느꼈거든요. 손오공도 처음에는 도가의 보디조사에게 배워 72 가지 변화를 익히고, 나중엔 삼장법사를 모시고 서역으로 경을 구하러 가서 결국 ‘투쟁의 승리불(鬪戰勝佛)’이 되잖아요.

혹시 제가 너무 엉뚱한 상상을 한 건 아닌가 걱정되는데요. 아저씨도 『도덕경』을 품고 다니시면서도 머리를 깎고 불가의 길을 가셨다고 하니까요…

마창성:

(마 아저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에이버리의 연상에 흥미를 느끼는 듯한 표정이다.)

아니야, 에이버리. 오히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연상이었어. 손오공은 정말 특별한 인물이란단. 그의 여정 자체가 수행자의 길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이야기지.

내가 『도덕경』을 품고도 불가로 출가한 건, 처음엔 서로 다른 길처럼 보일 수도 있어.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나도 손오공과 조금은 닮은 점이 있다고 느껴. 도가의 책을 건

네받았지만, 꿈속 고승의 계시를 받고는 불문에 귀의하게 되었지.

그 꿈에서 본 고승의 형상이 너무도 또렷하고 강렬했어. 그래서 나는 머리를 깎고, 갈색 가사를 입고, 출가의 길을 택했지. 그것은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을 단호히 끊어내고자 하는 결심의 표현이었어.

그리고 『도덕경』은… 이미 말했듯이 할아버지가 남겨 주신 유물이며, 내게는 길동무 같은 존재였어. 그때 나는 이 두 길이 서로 충돌된다고 느끼지 않았어. 수행의 길 위에서 나는 그냥 걷고, 읽고, 겪고, 느꼈지. 어떤 시련을 맞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면, 『도덕경』의 한 구절이나 우연히 들은 불경 속 말씀이 문득 떠올랐고, 그것이 내 앞길을 비추어주는 작은 등불처럼 느껴졌어.

나는 단순하게 생각했지. 고대 성인들은 결국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착하게 살라, 고통을 벗어나라 가르쳤으니, 모든 불이든 결국 좋은 곳으로 이끄는 길일 거라고.

(마 아저씨는 잠시 멈추고, 눈빛이 조금 먼 곳을 바라본다.)

물론, 그건 수십 년 전, 초심자 시절 내 생각이었지. 나중에 진정한 대법을 만나고 나서는, ‘불이법문(不二法門)’의 이

치를 깊이 깨달았단다. 수행의 길은 오직 하나이며, 그 길 위에서는 반드시 단일한 마음과 전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지. 그런 인식은 이후의 일이었고, 인연이 무르익은 뒤에야 가능한 일이었어. 그 시절의 나는 그저 낡은 책 한 권을 품은 떠돌이 수행자였고, 흐릿한 빛을 좇아 길을 나선 존재였지. 그리고 그 당시 내가 접한 성현들의 가르침 속에는 어딘가 공통점이 느껴졌고, 모두 선을 향하고 있었어.

손오공도 그렇잖아. 처음엔 보디조사에게 도술을 배우고, 나중엔 삼장법사를 따라 수많은 재난을 겪고, 금고아(金箍兒)의 속박 속에서도 단련을 거쳐 마침내 투쟁의 승리불이 되잖아. 결국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준비였고, 단련이었지.

(마 아저씨는 에이버리를 바라본다. 그 눈빛엔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에이버리가 이처럼 깊은 통찰과 연상을 해냈다는 사실이 반가웠고, 그것이 곧 도를 찾는 마음, 영적인 고민이 있는 사람의 징표라 여겨졌다.)

에이버리 린:

그럼 초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아저씨의 여정은 어떻게 이어졌나요?

마창성:

(마 아저씨는 길게 숨을 내쉴다. 곧이어 말하려는 긴 여정이 쉽지 않았음을 암시하듯, 창밖의 저녁 햇살은 완전히 사라졌고, 방 안은 부드러운 어둠에 잠긴다. 그는 손을 뻗어 스탠드 조명을 켜고, 따뜻한 노란빛이 방 안을 은은히 밝힌다.)

초반의 혼란과 어려움을 지나자, 나는 진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고승이 남긴 그 말처럼, “사방을 유랑하며 법을 구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본격적인 방랑의 길에 오른 거야. 그 여정은 무려 30 년 가까이 이어졌어, 에이버리아. 삼십 년 동안 세상 곳곳을 떠돌며,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온갖 단맛 쓴맛은 물론이고, 때론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이는 일도 많았지.

나의 발자국은 이름 있는 사찰이나 도관뿐 아니라, 이름도 없는 외진 곳, 티베트의 고원에서부터 풍요로운 평야지대까지 남겨졌어. 인연이 닿아, 인도나 네팔 같은 불교권 국가를 넘나들고, 태국까지 발을 디딘 적도 있었지. 어디에 영산이 있다, 고찰이 있다, 숨은 도인이 있다는 말만 들리

면 나는 그 길을 향해 걸었단다. 그저 어딘가에 진정한 법이 존재하리라는 희망 하나로 말이지.

그 여정은 말 그대로 생존의 연속이었어. 굶주림과 추위는 일상이었지. 며칠씩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도 있었고, 하루하루 탁발하며 연명했단다. 밤이 되면 사찰 처마 밑, 다리 밑, 시장 구석, 아니면 바위굴이나 나무 아래에서 몸을 누였어. 북쪽 겨울의 살을 에는 추위, 남쪽 여름의 타는 듯한 더위, 장마철의 끝없는 비바람—이 모든 걸 다 견뎌야 했지.

병도 날 놓아주지 않았어. 정글에서 말라리아에 걸리고, 이질로 고생하고… 어떤 땐 깊은 산속에서 쓰러져 사흘 넘게 정신을 잃은 적도 있어. 그럴 때마다 나를 붙잡아준 건, 도를 구하겠다는 의지와, 꿈속 고승과 나눈 서원이었어.

그 외에도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었단다. 가진 게 얼마 없었는데도 도둑을 만나고, 심지어는 거짓 스님들에게 속아 입던 가사마저 빼앗긴 적도 있었어. 산속에선 맹수를 마주치고, 강을 건너다 떠내려갈 뻔한 적도 있었고,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질 뻔한 순간도 있었지. 말로 다 하긴 어렵단다.

(마 아저씨의 목소리는 낮고 깊어지고, 세월의 무게가 묻어난다.)

굶주림이나 추위야 차라리 익숙한 친구처럼 느껴졌어. 하지만 가장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의 외면과 외로움이었어. 사람들은 나를 거절했고, 속셈이 있는 사기꾼이거나, 간첩이 아닐까 하는 눈초리로 바라봤지. 그런 시선은 채찍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단다. 밤마다 홀로 누워, 내 안의 나약함, 의심, 그리움과 마주했어. 가족이 보고 싶었고, 고향이 그리웠고,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지.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 걸까? 모든 걸 버리고 떠날 만큼 가치가 있는 걸까?

(그는 한동안 말없이 멈춘다. 에이버리도 조용히 숨을 죽인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결만이 부드럽게 퍼져 있다.)

하지만, 에이버리야, 바로 그런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내 믿음은 더 단단해졌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오히려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신기한 광경들을 목격했어. 바로 그런 일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고, 끝이 보이지 않던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갈 힘을 줬단다.

에이버리 린:

네, 법을 찾는 여정이라니... 30 년이라면 제 나이보다도 훨씬 긴 시간이에요. 아마도 『서유기』 처럼 셀 수 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겠죠...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아저씨에게 어떤 추가적인 ‘깨우침’이 찾아오기도 했나요? 그리고 그 30 년의 여정 속에서, 특별한 인연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마창성:

(마 아저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멀리 두고 기억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그래, 에이버리야. 정말 긴 세월이었단다. 만약 절망 끝에 한 줄기 희망이 비치지 않았다면, 뜻밖의 깨우침이나 기적 같은 인연들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었을 거야.

고난에 대해서라면...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단다. 한겨울 북쪽 산중에서 눈이 온통 뒤덮인 어느 해가 생각나. 사찰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 나는 겨우 조그마한 바위굴 하나를 찾아 들어가 추위를 피했지. 며칠 전부터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배는 고파서 속이 타들어 가고, 몸은 떨릴 정도로 추웠어.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도덕경』을 품에 꼭 안은 채 그나마 체온을 유지하려 애썼단다. ‘아, 나는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생각했어.

그때, 배고픔과 추위로 인한 혼미한 정신 속에서 다시 그 고승이 나타났어.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그 눈빛은 무한한 자비와 격려로 가득했어. 깨어났을 때는 해가 떠 있었고, 눈도 멈춰 있었지. 몸 안에 어딘가에서 생긴 이상한 기운 덕분인지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고, 길을 걷다 좋은 사냥꾼을 만나게 되었어. 그분은 말없이 마른 식량을 나눠주고, 근처 마을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단다. 그때 나는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난 셈이었어.

또 한 번은, 남쪽 국경 근처의 정글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쓰러졌을 때였어. 버려진 풀오두막 안에서 며칠을 앓고 있었지. 약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어. 그땐 진심으로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고 체념했단다. 그런데 고열 속에서 나는 꿈을 꾸었어. 온통 가시가 뒤덮인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 끝엔 아주 밝은 빛이 있었지.

깨어났을 때, 옆에는 한 노부부가 앉아 있었어. 소수민족 어르신이셨는데, 나를 발견하고 풀로 끓인 물을 가져오셨단다. 그 물을 마시고 나서부터 몸이 서서히 회복되었어.

그분은 내가 며칠 동안 거기 누워 있어서 이미 죽은 줄 알았다고 하셨어.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는 ‘이 길은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확신을 더 갖게 되었어. 아무리 험난해도,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는 존재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

그리고 특별한 인연들도 있었어. 한 번은, 중국의 유명한 숭산(嵩山) 지역—소림사로 잘 알려진 그곳—에 갔을 때였어. 물론 그때의 소림사는 전설처럼 장엄하거나 성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었지. 그래도 나는 혹시 숨은 고승이 있을까 기대하며 며칠을 그 주변에서 머물렀단다.

산중 사찰 근처를 서성이다가 어느 날, 큰 고목 아래에서 조용히 명상하고 있는 노스님 한 분을 발견했어. 매일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시더라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으셨어. 나는 용기를 내어 그분께 다가가 공손히 합장하고, 말씀을 청했단다.

노스님은 천천히 눈을 뜨시더니,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 훑어보시고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 그분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묻지 않으셨어. 대신 단 한 마디만 하셨어.

“정성이 있다면 돌도 열리느니라. 그러나 이 땅의 돌은 이

미 닳아 없어졌고, 법은 이곳에 머물지 않는다. 남쪽으로 가거라. 더 높은 산, 더 하얀 구름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눈을 감으셨어.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 그 말씀의 의미를 곱씹으며 말이야. “이곳의 돌은 닳아 없어졌고, 법은 머물지 않는다”—소림사처럼 이름난 사찰에 와서 기대했던 희망이 한순간에 꺼지는 느낌이었지. 하지만 그 다음 말씀, “남쪽으로 가라”—그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한 마디였어.

비록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말에는 자비와 통찰이 담겨 있었어. 나는 깊이 절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지. 마음속에는 또 다른 결심, 또 다른 방향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단다.

이런 만남들은 짧고 간결했지만, 거대한 바다 속 길을 잃은 나에게 작은 등대처럼 방향을 제시해주었어. 그리고 진정한 도인은 항상 조용하고 소박한 곳에 머문다는 것도, 그분들을 결코 외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려주었지.

(마 아저씨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본다. 저녁노을이 지고 있는 풍경이 방 안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창문 밖에서는 벌레들의 잔잔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에이버리 린:

아마도 그 소림사에서 만난 고승께서는 아저씨의 인연과 걸어가야 할 길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저씨처럼 법을 구하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깨우침과 인연들은, 저 같은 젊은 수련자들에게는 언제나 큰 관심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꽤 늦었네요. 해도 산 너머로 서서히 지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이어가도 될까요?

마창성:

(마 아저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은 채 창밖을 바라본다. 멀리 산 위로 붉게 물든 마지막 햇살이 흩뿌려지고 있다. 그는 다시 에이버리를 향해 말한다.)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네 말이 맞아, 이제 저녁도 깊었고 말이지. 이런 이야기들은 하루 이틀로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시간이 되면 다시 이어서 이야기하자.

(마 아저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기지개를 켜다. 그리고 에이버리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오랜만에 옛 이야기를 꺼내어 너와 나눌 수 있어서 참 기뻐한다.

너처럼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깊이 있게 생각하며 반응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치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 그때 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도를 찾고 있었지.

자, 이제 돌아가서 꼭 쉬렴.

이 산길은 밤에 오갈 때 조심해야 하니, 천천히, 조심히 가거라.

둘째 날

에이버리 린:

안녕하세요, 마 아저씨. 저 다시 왔어요...

마창성:

(마 아저씨는 찻상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후 햇살이 사선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 에이버리의 목소리를 들은 그는 고개를 돌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한다.)

그래, 어서 와, 에이버리. 앉으렴. 마침 방금 따끈한 차를 한 주전자 끓였단다.

(마 아저씨는 에이버리에게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하고, 조심스럽게 뜨거운 찻잔을 하나 따른다.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산차의 은은한 향이 퍼진다.)

자, 그럼 오늘은 어제 못다 한 이야기를 이어가야겠지. 삼십 년의 유랑 수행... 참으로 길고도 파란만장한 세월이었단다. 어제 잠깐 언급했지만, 그 여정은 단순히 배고픔이나 병, 위험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었어. 때로는 정말로 믿기 어려운 기이한 일들을 겪기도 했고, 이제 다 왔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금 멀게만 느껴지는 법의 경계를 마주하기도 했지.

(마 아저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먼 시선을 창밖 어딘가에 두며 그 고되고도 오묘했던 세월로 다시 걸음을 옮긴다.)

에이버리 린:

네, 정말 기대돼요, 아저씨. 시간의 순서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셔도 돼요. 떠오르는 대로, 마음속에 가장 깊게 남아 있는 이야기부터 들려주세요.

마창성:

(마 아저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삼십 년이라는 세월은 긴 여정이었고, 기억들도 짙고 열음이 있단다. 어떤 일들은 또렷하게 기억나고, 어떤 일들은 마치 조각난 그림처럼 희미하지. 그러니 나는 마음속에 가장 선명히 남아 있는 순간들, 내 수행의 길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들려줄게. 시간 순서가 꼭 맞지 않더라도, 이야기의 흐름만 이어지면 되겠지.

(마 아저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에이버리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믿음을 굳건히 해 준 특별한 체험 중에,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티베트 라마승의 열반을 직접 목격했던 일이란다.

그건 내가 출가한 지 십 년쯤 지난 어느 해였어. 당시 나는 청장 고원의 외딴 지역을 떠돌고 있었지. 그곳은 공기가 맑고 고요했으며, 사람들도 참으로 신심 깊었어. 어느 날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있었어. 덕망 높은 한 라마스님께서 곧 열반에 드신다고, 마지막으로 법문을 하신 후 좌화(坐化)하실 거라는 이야기였지.

나는 큰 기대와 설렘을 안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향했단다. 도착했을 땐 이미 법문은 끝난 상태였어. 연세 많아 보이는 라마스님께서는 인자한 얼굴로 돌단 위에 앉아 명상 중이셨고, 그 주위엔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지. 분위기는 경건하고 엄숙했단다.

나도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어. 마음속으로 작은 인연이라도 생기길 바랐지. 그런데 그 순간, 명상 중이시던 라마스님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어. 그분의 눈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맑았고, 바로 나를 향해 바라보셨어. 순간 나는 당황했고, 왜 하필 나를 바라보시는 걸까 의문이 들었어. 그런데 입을 열지도 않으셨는

데, 내 마음속에서 아주 또렷하고 따뜻한 음성이 들려왔단다. “너의 길은 아직 멀다. 흔들리지 말고 가거라.”

나는 놀라움과 감동 속에서 가슴이 벅차올랐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내 마음속의 피로와 의심을 단숨에 씻어내는 듯했지. 그분은 미소를 짓고는 다시 눈을 감으시고, 깊은 선정에 드셨어.

그로부터 약 오 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명상 중이던 라마스님의 몸에서 찬란한 오색 광채가 퍼져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 빛은 점점 밝아졌고, 마치 숨결처럼 퍼져나갔어. 그러더니 스님의 육신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단다.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마침내는 온몸이 무지개처럼 빛나는 둥근 광구 하나로 바뀌었어. 그 광구는 한동안 허공에 머물다가, 천천히 하늘 위로 떠오르며 파란 하늘 속으로 사라졌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났을 잃은 듯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이내 동시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지. 나도 무릎을 꿇었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단다. 생애 처음으로, 나는 그렇게 확실하게 신(神)과 부처의 존재를 느꼈어. 정말로, 이 세상엔 그런 경지에 도달한 존재들이 계시다는 걸 의심 없이 믿게 되었지.

그분이 떠나시기 직전 내게 전해주신 그 짧은 말—“너의 길은 아직 멀다. 흔들리지 말고 가거라.”—그 말은 내 수행 길의 등불이 되었어. 아무리 힘들고 흔들릴 때에도, 나는 그 말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

그날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또렷이 남아 있어. 그 이후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준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가끔 마음이 지칠 때면, 나는 그 무지갯빛 광구와 그분의 자비로운 눈빛을 떠올려. 그러면 다시금, ‘그래, 이 길은 가야 할 길이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나지.

(마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춘다. 그의 목소리엔 잔잔한 감동이 배어 있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은 어느새 식어 있었다.)

에이버리 린:

와... 정말 가슴을 울리는 장면이에요. 이런 ‘좌화’에 대한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글로만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들은 건 처음이에요...

마창성:

(마 아저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기억의 감동이 어른거린다.)

그래, 에이버리야. 책에서 읽거나 남이 들려준 이야기만으로는 의심도 들고, 마음속에서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지. 하지만 그런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끼고 나면, 그 믿음은 더 이상 흔들릴 수가 없단다. 철처럼 단단해져.

히말라야 산맥을 떠돌던 시절, 나는 또 한 번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어. 그때는 네팔의 깊은 산속 외진 지역을 지나고 있었어. 산들이 겹겹이 이어지고, 하얀 구름이 봉우리를 감싸는 곳이었지. 공기마저 투명하게 느껴질 만큼 맑았단다. 그곳에 가기 전부터, 순례자들이나 현지 사람들에게서 “나는 스님”에 대한 전설 같은 얘기를 몇 번 들었어. 어떤 노스님이 산봉우리 사이를 가볍게 날아다닌다는 거였지.

어떤 사람은 그분이 보살의 화신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생을 거쳐 이미 도를 이룬 수행자라고도 했어. 나도 들은 적은 있지만, 당시엔 그런 신기한 얘기가 워낙 많았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

그런데 어느 날, 외진 계곡에서 길을 찾다가 우연히 높은 산비탈 쪽을 올려다보게 되었어. 거기에 조그맣고 단정한 노스님 한 분이 바위턱에 서 계셨단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무척 가볍고 자연스러워 보였어. 마치 중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뭔가 특별한 순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

그 순간, 그분은 가볍게 몸을 떠밀듯이 앞으로 나아가더니, 정말로 천천히 떠올랐단다. 갑자기 솟구치거나 빠르게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마치 공중을 산책하듯이. 그분은 한쪽 산봉우리에서 다른 쪽 봉우리까지, 깊은 계곡을 가로질러 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이동하셨어. 가사 자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큰 나비처럼 보였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넋을 잃고 바라봤지. 그 장면은 몇 분간 이어졌고, 그분은 반대편 바위 위에 가볍게 내려선 후, 나무숲 안으로 천천히 걸어 사라지셨어.

그분이 사라진 뒤에야 나는 겨우 숨을 내쉬었단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경이롭고, 마음속에 벅찬 감동이 밀려왔지. 나는 그 순간, 내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수행의 경지를 직접 목격했음을 깨달았어. 이제까지 들은 모든 이야기가 결코 허황된 전설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단다.

나는 그분을 따라가거나, 뭔가를 묻거나 하지 않았어. 그런 만남은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주어진 귀한 인연이니까. 그분은 마치 전설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이런 인연들은 직접 수행법을 전해주는 건 아니었지만, 나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었어. 고대 경전에서 말하는 신통, 초자연적인 수행 능력들이 실재한다는 걸 내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지. 그렇게 되니 내가 찾고자 하는 ‘법’이라는 것이 더 이상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도달 가능한 실체로 다가왔어.

그런 체험은 내게 다시금 힘을 불어넣었고, 그 멀고도 험한 길을 계속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단다.

(마 아저씨는 조용히 한숨을 쉬고는, 에이버리를 향해 미소 짓는다.)

그런 순간들은 정말 행운이었어, 에이버리야. 하지만 그렇게 신비로운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란다. 대부분의 시간은, 차가운 현실 속에서 스승을 만나지 못하거나, 거절당하거나, 기대가 무너지는 일들의 연속이었지.

에이버리 린:

맞아요. 우리처럼 수행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공중을 나는 현상’을 들어도 놀라지 않지만, 아직 수련에 들어서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믿지 않거나, 심지어 직접 봐 놓고도 환각이니 마술이니 하며 무시해버리죠...

마창성:

(마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표정을 짓는다.)

그래, 에이버리야. 네 말이 정말 옳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야. 대부분은 환각이거나,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거나, 아니면 정교하게 짜인 마술쯤으로 생각하지. 왜냐하면 그런 현상은 지금의 실증적 과학이나 물리 법칙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수행의 길에 발을 들여 놓은 사람들, 비록 작게나마 영적인 세계나 에너지, 의식의 작용을 체험해 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그리 낯설지 않아. 우리는 알지, 이 우주에는 인간의 좁은 인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신비한 법칙과 차원이 무수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기이한 인연들은 비록 나에게 직접적인 법문이나 수련 방식을 전해준 건 아니었지만, 내게는 마치 등

불처럼 작용했다. 그 불빛은 나로 하여금 ‘법을 찾겠다’는 초심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도록 지켜주었어.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실재하며, 그것을 위해 모든 걸 걸고 나아갈 가치가 있다는 걸 다시금 상기시켜줬지.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놀라운 장면들만 있었던 건 아니야. 내 수행 여정의 대부분은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반복이었지.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절과 도관을 찾아다녔단다. 어디에 덕망 있는 스님이나 도인이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즉시 달려가 스스로 제자가 되고 싶다고 간청했어.

어떤 분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한참을 바라보신 뒤, 부드럽게 말씀하셨어. “이곳은 너의 인연이 있는 자리가 아니란다, 씩창행. 너의 길은 이보다 더 넓고도 먼 곳에 있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가 도를 찾으려는 그 간절한 마음은 충분히 느껴진다. 하지만 나는 너를 이끌 수 있는 덕이 부족하단다. 네 진정한 사부는 아직 앞에 있어. 멈추지 말고 계속 가거라.”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한 마음을 다 털어놓은 후,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계속 가렴. 너의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지고, 인연이 원숙해

질 때, 너는 ‘그 부름’을 듣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너는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알게 되겠지.”

그런 거절의 말들은 처음엔 내 마음을 무척 낙담하게 했단다. 마치 계속 걷고 또 걷지만, 도착지에 닿지 못하는 느낌, 어디에도 머물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밀려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거절들 속에는 따뜻한 자비와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어. 그분들이 나를 거절한 이유는 내가 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인연이 아직 익지 않았고, 그분들이 전하는 길이 내가 찾아야 할 ‘진정한 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그런 말들 속에서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 내게는 어떤 특별한 인연과 안배가 있다는 것, 언젠가 반드시 나를 위한 진정한 스승과 대법이 나타나리라는 것. 그 스승은 꿈속에서 나타난 그 고승이 말한 분일지도 모른다고.

그런 실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마음은 내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었단다. 그건 내 인내와 의지를 시험하는 하나의 큰 고비였지. 만약 내가 처음 그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철저한 결심이 없었다면, 어쩌면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몰라.

(마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에이버리의 찻잔에 차를 따라준다. 그리고 자신의 찻잔에도 따르며, 잔 위로 피어 오르는 은은한 김을 바라본다. 그 눈빛에는 지난 삼십 년 간 거처온 수많은 길과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깊은 회상이 담겨 있다.)

에이버리 린:

그런 거절의 순간들 중에서, 혹시 더 자세히 기억나는 일화가 있나요? 그런 도사분들께 거절당했을 때, “제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잠시 머물면서 법문을 들을 수는 없을까요?” 하고 다시 청해본 적은 없으셨나요?

마창성:

(마 아저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되살아난다.)

그럼 있지, 에이버리야. 그런 거절들은 마음에 깊이 새겨졌단다. 왜냐하면, 그런 순간마다 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항상 순순히 돌아선 건 아니었어. 도를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때론 꼭 붙들고 간청하기도 했단다.

한 번은 후난 지방의 한 유명한 산을 찾았어. 수년째 은둔하며 도를 닦는 고도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말이지. 며칠간 수소문한 끝에, 대나무숲 깊숙한 곳에 자리한 소박한 초암에서 그분을 뵈 수 있었어. 일흔이 훌쩍 넘은 연세였지만,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고 기운이 넘치는 분이셨지.

나는 정중히 머리를 조아리며 지금까지의 여정과 간절한 소망을 말씀드렸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했어. 도사님은 말없이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셨고, 그 눈빛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는 듯했단다. 잠시 후,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의 진심은 느껴진다. 하지만 우리 사제의 인연은 아직 부족하다. 네가 걸어야 할 길은 이곳이 아니란다.”

그 말에 실망한 나는 다시 한 번 청했어. “제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잠시 이곳에 머물며 공양을 하고, 하루에 몇 마디라도 법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더는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도사님은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네가 배워야 할 것은 너 스스로 걸으며 체험하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다. 이곳에 머무는 것은 오히려 네 걸음을 지체시킬 것이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한마디 덧붙이셨지. “물이 맑으려면

흘러야 하고, 불이 빛나려면 타올라야 한다. 계속 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걸 느꼈어. 실망스럽고 슬펐지만, 그분의 말씀 속에는 깊은 자비와 배려가 느껴졌지. 어쩌면 나는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할 운명이었을지도 몰라. 조용히 절하고 초암을 떠났을 때, 내 마음 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남았어. “그럼, 도대체 어디가 내 안식처란 말인가?”

또 한 번은 사천성 악미산의 한 고찰을 찾았어. 이곳은 경치도 아름답고, 중국 4 대 불교 성지 중 하나야. 그 절의 주지 스님은 위엄이 느껴지는 분이었고, 계율도 매우 엄격하셨어. 나는 간절히 출가 의사를 밝혔지. 스님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도를 구하려는 뿌리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이 절은 네가 찾는 그 무언가를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곳의 의식이나 경전, 목탁 소리 속엔 네가 구하는 법이 담겨 있지 않다.”

나는 다시 한 번, 절에 머물며 허드렛일을 하면서라도 삼보를 가까이하고 법의 기운을 느끼고 싶다고 말씀드렸어. 그러나 스님은 손을 내저으며 말씀하셨어. “너의 길은 바람과 같아야 한다. 멀리 가야 비로소 하늘과 바다의 넓음

을 볼 수 있다. 이 절은 새장과 같아서, 아무리 잘 보살펴도 네가 날개를 펼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업장은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체험하면서 녹여야 한다. 고요한 암자 속 독송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한 말씀 더하셨지. “진정한 네 스승은, 아주 신묘한 법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분만이 너를 진정으로 해탈하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인연이 성숙되면, 만나게 될 거다.”

이런 거절들은, 겉으로 보면 아무 답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겐 마치 예언 같았고, 격려와도 같았어. 그것들은 내게 말해줬지. 이 모든 여정은 하나의 준비이고, 언젠가 내가 진짜 스승을 만났을 때, 그 법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과 성품을 다듬는 과정이라는 걸.

거절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되뇌었단다. “이 또한 내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관문이구나.” 긴 여정 속의 한걸음, 한걸음이었지.

(마 아저씨는 잠시 말없이 이마를 가볍게 문지른다. 실망의 기억이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두가 뜻 깊은 안배였음을 그는 조용히 되새긴다.)

에이버리 린:

그 긴 세월 동안 도를 구하러 다니실 때, 혹시 선생님처럼 법을 찾는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을 만나신 적은 있으신가요?

마창성:

(마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는다. 그 미소에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대한 깊은 공감이 담겨 있다.)

있었지, 많았단다. 만 리 길을 걷는 동안, 외로움은 늘 곁에 있었지만, 가끔은 복이 닿아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만났지. 모두가 제각각의 사연을 품고 있었고, 모두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어. 어떤 이는 붓을 내려놓은 유생이었고, 어떤 이는 순박한 농부였으며, 심지어는 세속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가 모든 걸 버리고 길을 나선 사람도 있었단다.

누구나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길을 찾고 있었지. 어떤 이는 경전을 깊이 연구하며 그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고, 어떤 이는 선정을 닦으며 육신을 단련했고, 또 어떤 이는 나처럼 절과 도관을 떠돌며 어딘가에 있을 진정한 스승을 찾으려 했단다.

한 번은 사천 지방에서 티베트를 향해 가던 중, 눈빛이 매우 맑은 한 남자를 만났어. 그는 세 걸음마다 한 번씩 옆드

러 이마를 땅에 대는 ‘삼보일배’ 수행을 하고 있었지. 그렇게 해서 티베트로 가고 있다고 했어. 후베이성에서부터 출발했다는데, 수많은 성과 고개를 넘었다고 하더구나.

어느 날 정오쯤, 우리는 길가의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쉬게 되었고, 그때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 그의 말 속에는 놀라울 정도로 강한 신심과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지. 그는 온 마음과 몸을 다해 고난을 겪어야만 업장을 소멸할 수 있고, 그래야만 신불의 감화를 받아 티베트 어딘가의 수도원에서 제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단다.

그의 인내심과 정성스러운 마음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 당시 나는 방황하는 시기였고, 명확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기에, ‘나도 한 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지. 그래서 한동안 그를 따라 삼보일배를 시도해봤단다. 아, 정말이지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온몸이 쑤시고 기진맥진했지. 그제야 그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실감했어.

수많은 고난 끝에, 우리는 결국 티베트의 한 큰 수도원에 도착했단다. 나의 동행은 그 고행과 정성으로 인해 한 라마 스님에게 제자로 받아들여졌고, 그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

하지만 나는, 같은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했지. 나 또한 마음을 다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서운하고 답답했어. 라마 스님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의 구도심은 참으로 귀하다. 그러나 너의 업장은 아직 무겁고, 여기는 너의 인연이 머물 곳이 아니다. 너는 아직 더 먼 길을 걸어야 하고, 더 많은 체험을 해야 진정한 스승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단다. 함께 힘든 여정을 걸어온 동행은 머무를 수 있었고, 나는 또다시 정처 없이 떠나야 하다니… 참으로 허탈하고 외로웠지. 하지만 곧 다시 떠올렸어. 꿈속에서 만난 고승이 말하셨던 그 말씀 말이야. “이 길은 고되고 길 것이니, 업장을 씻고 인내심을 단련하라.”

그 거절 또한 하나의 안배였고, 내 운명은 다른 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길이라는 걸 점점 받아들이게 되었지. 나는 계속 가야만 했어. 찾고, 또 찾아야 했단다.

(마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런 만남들은 짧은 순간일지라도 내겐 큰 위안이 되었어. 나 혼자만 이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 많은 이들이 나처럼 진리를 구하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

미약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기도 했지. 때론 아무 말 없이 함께 먼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단다. 각자 자신의 해답을 찾으려는 그 시선 속에는 깊은 신념이 있었지.

물론 그런 동행의 인연은 오래가지 못했어. 누구나 저마다의 인연과 길이 있기 때문에, 만나면 또 헤어지고, 다시 각자의 길을 가야 했지. 마치 바다 위의 작은 배들이 한동안 함께 떠돌다 다시 제 갈 길로 흩어지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그들과의 기억, 그 간절했던 구도심은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깊이 남아 있단다.

에이버리 린:

"삼보일배" 수행법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그 수행을 하는 사람의 영상을 본 적도 있습니다.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의 구도심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마창성:

(마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이 멀어진다.)

그래, 맞단다.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서 너희는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쉽게 볼 수 있지. 하지만 내가 수행하던 시절

에는 그런 정보가 거의 없었단다. 그런 정성과 의지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주는 충격과 감동은 정말 크지. 인간의 믿음과 정성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거든.

(마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계속 이야기한다.)

내가 방금 말한 그런 기연들이나 도반들과의 만남은, 긴 여정 속에서 나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반짝이는 순간들이었단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고독했고, 모든 어려움과 씨름하며 혼자서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었지.

나는 어떤 스승 밑에서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단다. 나의 배움은 여러 출처에서 조금씩 얻은 것들이었어. 할아버지가 주신 『도덕경』은 언제나 나의 동반자였지. 고난이나 시련을 겪을 때마다, 혹은 인생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할 때마다 나는 그 책을 펼쳐보곤 했단다. 익숙한 구절이라도, 다시 읽으면 또 다른 뜻이 보이곤 했어.

길에서 우연히 만난 스님이나 도사의 단편적인 가르침에서도 많은 걸 얻었단다. 각자 다른 수행법과 해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때로는 단 몇 마디 말이 내 안의 문을 열어주

는 열쇠가 되기도 했어. 나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해두고, 스스로 곱씹으며 되새겼지.

심지어는 내가 만난 평범한 사람들—흙 묻은 농부나 손재주 좋은 장인 같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많은 걸 배웠단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인내, 자비, 삶의 이치를 느낄 수 있었어. 지혜는 꼭 고상한 말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소박하고 진실된 삶 속에도 숨어 있지.

그리고 자연 역시, 소중한 스승이었단다, 에이버리야. 웅장한 산, 굽이치는 강, 광활한 숲, 혹은 길가의 한 송이 들꽃이나 풀잎조차도 다 말 없는 가르침이었지. 대지의 움직임, 만물의 생멸과 부활, 그 흐름을 지켜보며 나는 우주의 무상함과 조화로움을 서서히 느끼게 되었단다.

하지만 아마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시련과 고통에서 왔을 거야. 굶주림, 병마, 천대, 외로움... 그런 것들이 나를 단련시켰고, 내 성격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며 마음을 정화시켜 주었지. 그런 고비를 하나씩 넘을 때마다,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고, 정신은 조금 더 맑아졌단다.

(마 아저씨는 에이버리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눈빛을 보낸다.)

이런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깨닫는 길은 참으로 험하고 외롭단다. 아무도 길을 안내해주지 않지. 하지만 어쩌면 그것 또한 하늘의 안배일지도 모르겠구나. 직접 더듬거리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내 것이 되었고, 내 피와 살이 되었단다. 그건 누군가 빌려준 지식이 아니라, 내 인생 속 체험을 통해 얻은 참된 깨달음이었지.

에이버리 린:

예,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어느 정도는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배운 것 대부분이 책에서 나온 지식일 뿐, 깊은 실전 경험은 거의 없죠...

그럼 박사님께서 진법을 찾아 다니시던 긴 여정 속에서, 도가나 불가 외에 다른 문파들과도 접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전법륜』에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기문공법’ 같은 것들요?

마창성:

(마 아저씨는 은근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인다.)

‘기문공법’ 말이지? 그래, 삼십 년을 떠돌던 그 세월 동안, 내가 항상 정통 불교 사찰이나 도가 도관만을 찾았던 건 아니란다. 진정한 법을 찾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비롭고 고차원적으로 보이는 여러 길과 수행법에도 호기심을 갖고 찾아다닌 적이 있었지.

(마 아저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고, 눈빛에 신중함이 떠오른다.)

사실 그 여정 중 한 시기에, 내가 거의 길을 잘못 들 뻔한 적도 있었단다, 에이버리야. 그건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되었고, 올바른 법이 없는 수행, 정사(正邪)의 분별 없이 수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지.

그 일은 내가 떠난 지 20 여 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어. 그 때쯤이면 나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 있었고, 이상한 일들도 많이 듣고 보고 겪었던 시기였단다. 남쪽의 한 외딴 산에 ‘선생님’이라 불리는 자가 있는데, 겉모습은 매우 단정하고 고상하며, 매우 빠르게 공능을 열 수 있고 특별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수행법을 가르친다는 소문을 들었지. 그 말을 듣고, 조급한 마음과 지름길을 찾고자 하는 욕심에 이끌려 나는 그곳을 찾아갔단다.

그 ‘선생님’은 확실히 겉으로 보기엔 매우 매력적이었어. 말도 유창하고, 사용하는 용어들도 무척 고차원적이고 신비롭게 들렸지. 그는 우주, 에너지,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경계들에 대해 말했어. 처음엔 그의 말을 듣고, 그가 가르쳐준 동작과 호흡법을 따라하자 약간의 감응도 느꼈고, 몸에서도 어떤 반응이 있었단다. 그래서 나는 ‘아, 드디어 제대로 된 곳을 찾았구나’ 하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점점 드러났어. 그 사람의 가르침은 아무리 고차원적으로 들려도, 자비나 올바른 마음가짐이 빠져 있었단다. 그는 항상 어떤 능력이나 이익을 얻는 데 초점을 맞췄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는 이야기까지 했어. 마음을 수양하고 집착을 버리라는 말은 거의 없었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점점 이상해졌고, 때론 이기적이거나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내용도 있었단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 수행법을 따르며 명상하던 어느 날 벌어졌어. 나는 그가 말한대로 ‘개통’을 이루기 위해 집중했는데, 갑자기 눈앞에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펼쳐졌단다. 찬란한 신불의 세계가 아닌, 새까만 어둠과 냉기가 온몸을 감싸고, 이상하고 일그러진 모습의 저급한 존재들—심지

어는 귀신처럼 생긴 존재들이 나타나 비명을 지르고 서로 다투는 것이었지.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며 온몸이 떨렸어. 끔찍하고 불길한 기운이 마음을 덮쳐왔고, 나는 황급히 명상을 멈추고 정신을 끌어냈지.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단다.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겉으로 보기엔 신비로워 보일지 몰라도, 그 수행법 속에는 사악한 요소가 숨어 있었고, 그것은 결코 정법이 아니었던 거야. 만약 내가 계속 그 길을 갔더라면, 해탈은 커녕 더 큰 업을 짓고, 저급한 존재들에게 조종당할 수도 있었겠지.

다음 날 아침, 나는 그곳을 아무 말 없이 떠났단다. 마음은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경솔했는지를 깊이 느꼈지. 그날 이후로 나는 더더욱 조심하게 되었고, 어떤 수행법이든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선 안 된다는 걸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단다. 반드시 마음으로 느껴보고, 자비와 선함, 올바른 도리와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해. 아무리 고차원적이라 해도, 그런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면 그건 정법이 아니야.

그 일이 있었기에 나는 이후 더 신중해졌고, 올바른 수행, 진정한 명사, 대법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지.

(마 아저씨는 길게 숨을 내쉴다. 이 불쾌한 기억을 이야기 한 뒤 조금은 홀가분해진 듯한 표정이다.)

에이버리 린:

방금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불가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인신을 얻기 어렵고, 중토에 태어나기 어렵고, 정법을 듣기 어렵다...”라는 말이요.

마창성:

(마 아저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담은 침착한 표정을 짓는다.)

그래, 맞는 말이야. “인신난득, 중토난생, 정법난문, 명사난우.”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도 헛된 것이 없단다. 그 안의 어느 것 하나도 얻기 쉬운 것이 아니고, 모두가 더없이 소중한 인연이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 보기에겐 당연한 듯하지만, 육도 윤회 속에서 오감이 온전하고 수련할 수 있는 인신을 얻기

위해선, 경전에서 말하듯 수많은 인연과 업력을 거쳐야만 가능하단다.

그뿐 아니라, ‘중토’—신이 전한 문화가 남아 있고, 성현들이 세상에 강림하여 경전과 수련의 길을 남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큰 복이야.

하지만 인신을 얻고, 수련문화가 있는 땅에 태어난다 해도, 정법을 들을 수 있고, 진정한 명사(明師)를 만나 이끌림을 받는 건, 말 그대로 바늘구멍에서 금을 찾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란다.

그때 그 사문(邪門) 수행법에 빠질 뻔했던 경험이야말로, 내가 ‘정법난문(正法難聞)’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건이었지.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한 말과 고상한 개념을 내세우고, 처음엔 뭔가 감응이 있는 것처럼 보여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하지만 그 안에는 자비가 없고, 올바른 생각이 없단다. 진심으로 도를 구하는 마음이 없거나, 분별력이 없으면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른 채 따라가게 되지.

삼십 년을 헤매며 수많은 자칭 ‘스승’, ‘도사’를 만났단다. 그중에는 나름대로 공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이도 있었지만, 그 수행법이 정법이 아니

거나, 나와 인연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지. 심지어 어떤 자들은 그저 사기꾼에 불과했단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정이 무엇이고 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특히 나처럼 아무도 이 끌어주는 이 없는 사람에겐 더욱 그랬단다.

그래서일까, 나중에 대법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감격과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단다.

그건 절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야. 오랜 세월의 방황과 수많은 땀과 눈물, 심지어 피까지 흘려가며 얻은 결과였어. 그것은 하늘의 무한한 자비였고, 한 죄인이 진심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은 하늘의 배려였단다.

그 사문 수행에 빠질 뻔한 경험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마치 해독제 같은 경험이었지.

그로 인해 나는 더욱 분별력을 얻게 되었고, 내 내면의 정법을 구하는 마음이 더욱 강하고 확고해졌단다.

넘어지고, 절망하더라도, 그 법을 향한 불꽃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어.

(마 아저씨는 에이버리를 바라보며, 그 눈빛엔 세월의 풍파를 지나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다.)

그러니 말이야, 너희들이 훗날 정법을 만나고, 명사에게 인도받는 인연을 얻게 되거든—그건 정말 커다란 복이라는 걸 꼭 기억하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란다. 잠시의 유혹이나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의지를 흔들지 말거라. 정수련의 길은 비록 장미꽃이 깔린 길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에이버리 린:

제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저는 대법을 너무 쉽게 얻은 것 같아요. 큰 고난도 겪지 않았고, 아마 인연과 약간의 깨달음만으로 쉽게 법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이 혼자서 온갖 곳을 떠돌며 법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저는 그런 일을 상상조차 못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 재난, 시련을 겪어야 하고, 또 온 여정을 외롭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월 동안 어르신은 혹시 깊은 산속에서 혼자 수행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마창성:

(마씨 어르신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에이버리의 생각에 공감하는 듯한 눈빛을 보낸다.)

네 말에도 일리가 있단다. 사람마다 인연이 다르고, 각자의 길도 다르게 정해져 있지. 어떤 사람은 수많은 고난을 겪은 뒤에야 법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은 인연이 다해 쉽게 얻기도 하지. 중요한 건 법을 쉽게 얻었는지, 어렵게 얻었는지가 아니라, 법을 얻은 후에 그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정말 마음을 다해 수련에 임하느냐는 거야. 아마 네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심어졌기에, 이번 생에서 이렇게 순조롭게 얻을 수 있었던 거겠지.

혼자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는 사람들 말인데, 삼십 년을 떠돌며 나도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고,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단다.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길은 허공을 응시한 채 마치 옛 장면을 떠올리는 듯하다.)

한 번은 중국 남서부의 험한 산악 지역을 지나던 중이었지. 그곳은 깊은 산과 위험한 물길로 인해 발길이 드문 곳이었어. 현지 사람들에게 들으니, 산 깊은 곳에 은둔한 수행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력은 매우 깊다고 하더구나. 하지

만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단다. 궁금증과 희망을 안고, 나 혼자 산속 깊은 곳으로 길을 나섰지.

며칠 동안 숲을 뚫고, 개울을 건너며 가다 보니, 마침내 덩굴에 가려진 꽤 넓은 동굴을 발견했어. 안은 어둡고 습했지만, 묘하게도 고요함이 감돌았지.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을 때, 나는 깜짝 놀랄 장면을 보게 되었어.

동굴 한가운데, 평평한 바위 위에 한 사람이 명상을 하고 있었단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 옷은 이미 다 해져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 머리카락과 수염은 하얗게 길었고, 겉보기엔 칠십이 넘는 노인이었지. 그런데 이상한 점은, 얼굴과 손의 피부가 탱탱하고 붉은 기가 감돌며 주름 하나 없이 마치 서른 정도의 사람 같았다는 거야. 그리고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 가슴이 전혀 오르내리지 않았고, 코에서도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단다. 마치 조각상 같기도 하고, 이미 마른 시신 같기도 했지.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그분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나는 그 사람이 살아 있는지, 아니면 열반에 든 것인지 계속 의문이었

지. 도대체 어떤 법문으로 저렇게 깊은 선정 상태에 들 수 있는 걸까, 하고 말이야.

그리고 넷째 날, 호기심이 극에 달했을 때였어. ‘혹시 맥박이 있는지 가까이 가볼까?’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발을 옮기기도 전에, 내 머릿속에 또렷하고도 따뜻한 음성이 울려했단다. "나를 방해하지 마라!"

나는 놀라 움찔했고, 명상 중인 그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 입은 꼭 다물고 있었고, 눈도 감겨 있었으며,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지. 그런데 그 음성은 확실히 내 머릿속에 직접 들려온 거야. 경외심과 동시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 내가 부적절한 생각을 한 거야. 수행 중인 분을 방해하려 했던 거지.

나는 급히 두 손을 모아 절을 몇 번 하고 마음속으로 사과했어. 그리고 조용히 동굴을 빠져나왔단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 동굴을 떠나면서, 마음이 뒤섞인 채로 수많은 생각이 들었지. 이 세상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것들이 너무 많단다. 어떤 법문, 어떤 경지들은 평범한 사람은 상상조차 못 해. 그 경험은 나에게 큰 확신을 주었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아무리 고되도 험된 게 아니구나. 어딘가에

분명히 진정한 수행자들이 있고, 진법도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지. 다만 내 인연이 아직 안 닿았을 뿐이고, 수련이 부족했을 뿐이야.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 외에도 다른 때, 아주 외진 산악 지역을 지나던 중 우연히 수행자의 흔적을 본 적이 있단다. 작은 초가집 같은 암자 하나가 산비탈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안에는 낡은 자리 하나와 몇 가지 소박한 물건밖에 없었어. 그 주인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쩌면 숲속 어딘가에 있었거나, 선정에 들어 있었겠지. 그 간단한 암자만 보아도 수행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느낄 수 있었어.

그런 독자적 수행자들은 아주 다른 길을 택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 오직 자신과 자연, 그리고 마음속의 시련에 조용히 맞서며 살아가지. 그런 길은 매우 단단한 의지와 신념, 인내심이 없으면 불가능하지.

나는 생각했지. 사람마다 수련 방식과 인연은 다르구나. 어떤 이는 번잡한 세상 속에서 수행하고, 어떤 이는 깊은 산중에서 조용히 닦아가네. 쉬운 길은 없단다. 가장 중요한 건 수행자가 해탈의 마음을 정말로 품고 있는가야. 그

들을 보면서, 나는 수행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새삼 느꼈고, 훗날 정법을 만나게 된 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더 절감하게 되었지. 세속을 떠나지 않고도 완성할 수 있는 수행의 길이라니, 얼마나 귀한 일인가.

(마씨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차 한 모금을 마신다. 외딴 산 속에 둘러싸인 이 작은 집에서, 고독한 수행자들의 이야기는 마치 또 다른 세상을 열어 보이는 듯하다.)

에이버리 린:

아마 그분들은 '벽곡(辟谷)'이라는 방법으로 수련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비전(秘傳)의 독자적인 수련법을 따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시 아저씨의 길에 대해 여쭙볼게요. 비록 어떤 '명사(明師)'에게서 직접 제자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으셨지만, 그 수많은 경전이나 실제 경험을 통해 분명 많은 유익한 깨달음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님께서 주셔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셨다는 그 도덕경에 대해서는,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을 깨달으셨나요?

마창성:

(마창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도덕경을 언급할 때의 소중함이 깃들어 있었다.)

네 말이 맞다네. 비록 어떤 명사께서 직접 제자로 받아들이 체계적으로 가르침을 주시진 않았지만, 그 삼십 년의 여정은 수많은 경험과 경전, 특히 도덕경과의 동행 덕분에 점차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지. 겪었던 고난과 기이한 만남들, 심지어 길을 잘못 들 뻔했던 순간들까지, 그 모든 것이 나의 스승이자 배움이었던 셈이야.

그리고 할아버님의 도덕경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긴 여정 내내 나를 비춰주는 등불이자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었네. 처음에는, 내가 말했듯이, 소귀에 경 읽기나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걸식하며 살아가는 부침을 겪으면서, 책을 펼쳐 읽을 때마다 글자들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새로운 층위의 의미를 열어 보이는 것 같았지.

(그는 그 깨달음의 과정을 회상하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 쿤룬(昆侖)산맥 지역을 지날 때였는데, 거의 2 년 가까이 험준한 산비탈을 헤매고 다녔지

만 이렇다 할 기이한 만남은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지친 나머지 산 정상 근처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은 작고 낡은 도관을 발견하고 하룻밤 묵기를 청했네. 너무 기진맥진했던 터라 꼬박 하루하고도 하룻밤을 세상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 그리고 그 깊은 잠 속에서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다네. 광활한 공간에 흰 구름이 뭉게뭉게 떠다니는 곳에 내가 서 있더군. 그때 노자(老子)께서 나타나셨는데, 백발의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 참으로 여유롭고 자유로워 보였어.

그분은 나를 보며 무척 인자하게 미소 지으시더니,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듯했네. "좋다. 허나 네가 나의 책을 읽고 이해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천오백 년 전의 배경에 서서 그 당시 언어의 본래 의미를 이해해야만 하느니라." 그 말씀을 마치자 그분의 모습은 점차 희미해지더니 이내 사라졌지.

잠에서 깨어났을 땐 해가 이미 높이 솟아 있었어. 꿈속에서 들었던 노자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네.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지. 그동안 내가 도덕경을 읽은 것은 그저 오늘날의 글자에 따라, 오늘날 사람들의 이해 방식으로 읽었을 뿐이라는 걸. 언어라는 것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얼

마나 많이 변했던가. 그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노자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그 깊은 사상을 어찌 진정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나는 그 꿈이 중요한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믿는다네. 그때부터 도덕경을 읽을 때면 더 이상 건성으로 읽지 않았어. 옛 주해서들을 찾아보고, 춘추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 애쓰면서, 옛사람들이 그 단어를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그해보려 노력했지.

그것은 내가 도덕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실로 전환점이 되었네. 점차 책의 숨겨진 맥락에 닿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전에는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구절들이 훨씬 명확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어.

예를 들어 첫 구절 말일세. "도(道) 가도(可道) 비상도(非常道), 명(名) 가명(可名) 비상명(非常名)." 깨우침을 얻기 전에는 나도 오늘날의 많은 사람처럼 '비상(非常)'이라는 글자를 '비범(非凡)하다', '특출나다', '위대하다'는 뜻으로 오해했지.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야말로 위대하고 비범한 도이며,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이야말로 평범하지 않은 이름이다"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

하곤 했어.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웅장하게 들릴지 몰라도, 노자의 진정한 뜻과는 거리가 먼 해석이지.

본래의 의미를 파고든 후에야 깨달았네. 여기서 '비(非)'자는 '아니다'라는 뜻이라는 걸. '비상도(非常道)'는 실은 '항구적이고 불변하며, 모든 묘사를 초월하는 그런 도가 아니다'라는 뜻이었던 게야. 즉, 인간이 언어로 표현하고 '말로 할 수 있는(可道)' 도는, 우주의 본체인 진실하고 영원한 도가 아니라는 것이지. 진정한 도는 형태도 없고 모습도 없어서, 인간의 어떤 유한한 언어로도 온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것을 '말하려고' 애쓰는 순간, 그것을 한정 짓고 하나의 개념이나 학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니, 더 이상 항구하고 불변하는 '상도(常道)'가 아닌 게지. 마찬가지로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名可名, 非常名)"라는 것은, 인간이 사물을 부르고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은 그 사물의 진실하고 영원한 이름이 아니라는 뜻이야. 이름이란 단지 약속이고 기호일 뿐이니까. 만물의 진정한 본질은 모든 명칭을 초월한다네.

이 깨달음은 내가 명칭이나 형식, 화려한 언사에 대한 집착을 크게 내려놓게 해주었어. 진리란 얼마나 많은 경전을 외우고, 얼마나 많은 고상한 술어를 아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호흡 속에서, 주변의 모든 사물과 현상 속에서 그 도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지. 또한 다른 사람의 해설을 들을 때도 더 신중해졌고, 겉보기에 '비범'해 보이지만 소박한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난 해석을 선불리 믿지 않게 되었네.

혹은 '상선약수(上善若水)' –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는 가르침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물지. 그것은 내게 겸손과 인내, 그리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헌신하는 법을 가르쳐주었어. 세상 사람들에게 내쳐지고 멸시당하던 세월 동안, 바로 이 가르침 덕분에 원망 없이 평온한 마음을 지킬 수 있었지.

그런 식으로, 도덕경의 각 장과 구절들은 실제 경험을 통해 내게 새로운 층위의 의미를 열어주었네. 그것은 단지 읽기 위한 책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자, 나를 대조하며 배울 수 있는 스승이 되어주었어.

(마창성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느덧 저녁 햇살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고난 속에서 지혜를 찾은 이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에이ברי 린:

와! 아저씨께서 "도(道) 가도(可道) 비상도(非常道), 명(名) 가명(可名) 비상명(非常名)" 구절을 그렇게 설명해주시니 이제야 노자의 뜻을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 다음 구절인 "무명(無名), 천지지사(天地之始), 유명(有名), 만물지모(萬物之母)"도 쉽게 이해가 되네요…

마창성:

그렇다마다, 애야. 첫 구절의 "비상도"와 "비상명"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두 번째 구절인 "무명(無名), 천지지사(天地之始), 유명(有名), 만물지모(萬物之母)"는 자연스레 풀리지.

"상도(常道)"가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고 '명(名)'에 의해 한정되지 않은 상태,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시작인 '무명(無名)'의 상태(天地之始)라네. 그때는 만물이 혼돈 상태로 아직 나뉘지 않았고, 구체적인 형상도, 이름도 없었지. 그것이 바로 원초적이고 순수한 본체인 게야.

그러다 인간이 인식을 시작하고,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며 만물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 이 산, 저 강, 이 나무, 저 짐승 – 바로 그때 '유명(有名, 이름이 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 '유명'은 '만물의 어머니'(萬物之母)가 되네. 이름이 생기고 구별이 생겨나면서부터 비로소 만

물이 인간의 의식 속에서 명확하게 형상화되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야. 각각의 이름은 마치 우리 인식의 세계에서 하나의 사물이 '태어나는' 것과 같지.

이것을 이해하고 나니, 노자께서 단어를 사용하신 방식이 얼마나 오묘한지 알겠더군. '무(無)'와 '유(有)'는 완전히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실재의 두 가지 상태이자 두 가지 측면이었던 거야. 도(道)의 '무명'에서 만물의 '유명'이 생겨나는 것이지. '무'가 본체라면 '유'는 그 작용인 셈이야.

그것은 또한 마음을 '욕심 없는(無欲)' 상태로,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네. 왜냐하면 마음이 욕망이나 선입견, 혹은 스스로 부여한 '명칭'들로 가려져 있지 않을 때에만 '그 오묘함을 볼(觀其妙)' 수 있기 때문이지 – 즉, 도(道)와 만물의 오묘함과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다는 말일세. 반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有欲)', 온갖 생각과 분별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저 '그 드러난 현상만 볼(觀其徼)' 뿐이지 – 사물의 겉모습, 한 계, 껍데기만 보게 된다는 뜻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더 깊은 사색에 잠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도덕경에서 이런 것들을 깨달은 것은 단순히 철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 수련의 길에서 겪는 고난에 맞서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네. 세상이 내게 붙여준 '거지', '실패자', '이단자'와 같은 '명칭'들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쫓기보다는 사물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그거 아는가? '무명'과 '유명'에 대한 이 이해는 나중에 내가 불교 경전을 읽을 인연이 닿았을 때, '공(空)'이나 '무아(無我)' 개념과 아주 흥미로운 유사점을 발견하게 해주었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모든 명칭과 현상, 이원론적 분별을 초월하는 어떤 초월적 실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것 같았지. 그 덕분에 진리는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수단과 언어를 통해 표현될 수 있다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네.

(마창성은 미소를 지었다. 거대한 사상의 흐름들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발견한 사람의 미소였다.)

에이ברי 린:

아저씨 말씀을 들어보니, 작가의 배경과 관점에 서야만 본

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그 뒤에 숨겨진 심오한 법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의 중요성을 알겠어요...

하지만 역사가 돌고 돌면서, 겉보기에는 변하지 않은 것 같은 많은 단어들의 의미가 180 도 달라져 버렸으니, 옛 경전을 읽는 것이 정말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경험에 비추어 보셨을 때,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단어들을 많이 발견하셨나요?

마창성:

(마창성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이 정말 맞다. 그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우리들이 옛 경전이나 성현들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닫고자 할 때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지. 시간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변하면서, 단어의 의미 또한 그에 따라 '실전(失傳)'되거나 변질되고, 심지어는 본래의 의미와 완전히 다르게 오해되기도 하네.

네 말처럼, 글자의 표면은 그대로이지만 그 안에 깃든 혼과 정수는 많이 달라졌어. 그 단어들이 탄생한 배경에 대해 신중하게 고찰하고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옛사람들의

뜻을 '오해'하는 상황에 빠지기 쉽고, 심지어는 완전히 잘못 해석하게 될 수도 있지.

내 도덕경 경험이 바로 그 명백한 증거라네. 만약 그 꿈속에서의 '깨우침'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여전히 평범한 이해 방식이나 '유행'에 따른 해석에 맴돌며 노자의 본뜻과는 거리가 먼 길을 헤매고 있었을 게야.

그리고 비단 도덕경뿐만이 아니라네, 에이버리. 불교 경전이나 유가의 고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나는 이런 현상을 발견했어. 오늘날 우리가 아주 다른 의미, 심지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어떤 용어들이 옛날에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장엄하고 심오한 함의를 담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 단어의 의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니, '강호(江湖)'라는 단어가 생각나는군. 오늘날 '강호'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살아가는 부랑자들이나, 청부 살인을 일삼는 폭력 조직, 원한과 폭력이 뒤얹힌... 다소 어둡고 복잡한 세계를 떠올리지.

하지만 옛 서적을 뒤적여 이 단어의 본래 의미를 찾아보면, 그것은 전혀 다른 아름다움과 호방함을 담고 있다네. 알아보는 과정에서, 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이 단어의 아주 흥미로운 기원을 발견했어. 옛날 강소(江蘇)와 호북(湖北) 지역에 도가 매우 깊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두 명의 유명한 도사(道師)가 계셨다네. 도를 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스승을 찾아 배움을 구하고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두 지역으로 와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지. 점차 사람들은 스승을 찾아 도를 배우는 길 위에 있는 그들을 통틀어 '강호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어. 즉, 강소와 호북을 향해 도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 이처럼, '강호'는 처음에는 깨달음을 갈망하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게야.

그 외에도 자연의 형상에서 비롯된 또 다른 층위의 의미가 있네. '강(江)'은 강이고, '호(湖)'는 호수지. '강호'는 처음에는 그저 강과 호수, 즉 조정이나 관리, 도시의 번거로운 예법에 얽매이지 않는 넓고 자유로운 땅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어. 공명과 이익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기개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소요하는 삶을 살기 위해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었지.

도가의 고전인 『장자(莊子)』에는 두 마리 물고기에 대한 아주 멋진 구절이 나온다네. 물웅덩이가 마르자, 두 마리 물고기는 땅 위에서 서로에게 침을 뱉어주며 살아남으려 애쓰지. 장자는 곤경 속에서 서로 돕는 그 모습이 비록 귀하기는 하나, "강호에서 서로를 잊고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만 못하다(不如相忘於江湖)"라고 말했어. 여기서 '강호'는 절대적인 자유의 상징이자, 각 생명이 고통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할 필요 없이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광활한 공간을 의미하네.

이처럼, 과거의 '강호'는 매우 아름답고 호방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 스승을 찾아 도를 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동시에, 속세를 벗어나고픈 영혼들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을 뜻했지. 그곳은 은자들과 사방을 유랑하는 수행자들, 의를 위해 싸우는 협객들의 공간이었어. '강호'는 그들의 공간이었고, 그들이 자신의 뜻을 펼치고 이상에 따라 살아가는 곳이었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름다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빛을 바래고 전혀 다른 옷을 입게 되었네. 사람들이 '강호'가 지녔던 구도의 정신, 호방함, 자유, 의를 중시하던 본래의 정신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게 되자, 그것은 점차

정처 없이 떠돌고, 무질서하며,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사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측면과 동일시되어 버린 것이야.

이건 단지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네, 애야. 하지만 언어의 심오한 변화를 보여주지. 옛 경전 속에는 우리가 신중하게 '근원을 추적'하여 본래의 의미를 찾지 않으면, 쉽게 오해하거나 심지어 옛사람들의 뜻을 왜곡하게 되는 단어들이 아주 많다네. 이것은 우리가 옛사람들의 정수를 깨닫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삶과 수련의 길에서 그릇된 행동이나 관념으로 이어지게도 하지.

그러므로 여러 자료, 특히 앞서간 고명한 분들의 주해를 대조하고 참고하며 진지하게 배우고 탐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네. 그것은 우리가 탁한 것을 걸러내고 맑은 것을 길어 올려, 그 귀한 가르침들의 '참된 소리'를 되찾도록 도와준다네.

(마창성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피곤함의 한숨이 아니라, 언어의 변천과 근원을 찾고자 하는 후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한 감탄의 한숨이었다.)

에이버리 린:

와! 이제야 '강호(江湖)'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걸 알았어요. 옛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경전뿐만 아니라 『서유기(西遊記)』 같은 고전 문학 작품도 독자들은 그저 '소귀에 경 읽기'처럼 작가의 깊은 숨은 뜻을 깨닫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마창성:

(마창성은 찬동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이 아주 옳다. 수련 경전뿐만 아니라, 옛 시문이나 우화, 고전 문학 작품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 탄생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작가가 글자 하나하나, 이미지 하나하나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문화적 암호'와 숨은 뜻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소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지. 겉껍데기만 볼 뿐, 그 안에 담긴 깊은 혼과 정수에는 닿지 못하는 게야.

옛사람들의 위대한 작품들은 단순히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과 도리, 심지어는 천기(天機)에 대한 수많은 층위의 의미와 교훈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네. 하지만 그 의미의 층들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작가가 사용한 전고(典故)와 고사(故事)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만 하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좋아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인 『서유기』를 읽을 때를 생각해보세. 겉으로 보면 삼장법사 일행 네 명이 팔십일 난(八十一難)을 겪으며 서역으로 경을 구하러 가는 기이한 모험 이야기이지.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을 본 셈이야.

손오공이 오행산(五行山) 아래에 깔렸던 장면을 기억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그저 천궁을 뒤집어 놓은 난폭한 원숭이에 대한 벌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네.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이미지는 실로 엄청난 비유적 의미를 담고 있지.

오행산은 단순히 손오공을 짓누른 하나의 산이 아니야. '오행(五行)' - 금(金), 목(木), 수(水), 화(火), 토(土) - 은 바로 인간의 육신과 온갖 중생을 포함한 이 삼계(三界) 전체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기본 물질 요소라네. 그렇기에, 손오공이 오행산에 오백 년 동안 짓눌려 있었다는 이미지는, 실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삼계의 모든 중생 또한 바로 이 물질 법칙, 이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의해 '억압'되고 속박되어 있다는 깊은 비유인 것이지. 우리는 오행의 틀 안에 갇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저 생로병사의

법칙에 지배당하고, 쉼 새 없이 육도윤회의 굴레 속에서 헤매야만 하네.

뛰어난 재주와 일흔두 가지 변신술, 한 번에 십만 팔천 리를 나는 근두운을 가진 손오공은, 속박을 벗어나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생명의 갈망을 상징하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삼계 안에 있고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결코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지. 즉, 정법(正法)의 인도와, 물질적 본체를 전환하고 그 위로 초월하기 위한 진정한 수련이 없다면, 스스로 이 우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도, 삼계의 속박에서 해탈할 수도 없다는 뜻이야.

산 아래 오백 년 동안 깔려 있었던 시간은, 또한 중생이 겪어야 하는 수많은 윤회의 겁(劫)을 상징하네. 고통을 겪고 세상의 속박 속에서 갈고닦으며, 점차 업력과 마성(魔性)을 소멸시켜 구원받을 기연, 진정한 수련의 길에 들어설 준비를 하는 시간인 것이지.

그리고 삼장법사 일행 네 명의 모습을 보세. 각자 성격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지. 삼장법사는 때로는 유약하고 요괴에게 잘 속지만, 부처를 향한 굳건한 마음과 자비심을 지니고 있네. 그것이 바로 수련인의 근본이지. 손오공은 재주가 뛰어나지만 성미가 급해서 금고아(금테, 즉 계율과 법의 구속을

상징)의 속박이 필요했어. 저팔계는 먹는 것을 탐하고 게으르며 욕망이 많지(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상징). 사오정은 묵묵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항상 힘든 짐을 짊어지지(수련의 길에서 필요한 꾸준함과 인내를 상징).

이 네 명의 일행은, 사실 한 수련자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측면들이라네. 그들의 경을 구하는 여정은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닦고 성품을 바로잡는 여정인 게야. 마주치는 매 겁난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집착심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시련이자 기회였던 것이지.

이런 비유적인 의미의 층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서유기』를 그저 단순한 신화 오락물로만 여기고, 옛사람들이 그 속에 담아 전하고자 했던 수련의 길과 삼계 중생의 처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놓치게 될 걸세.

(마창성은 마치 비유와 상징의 세계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한 열정으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지혜의 보고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에이버리 린:

아!.. 아저씨께서 서유기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걸 듣고 또 다른 층위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 서유기 영화를 보면서 신통력과 마법 장면들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봤지만, 작가 오승은(吳承恩)이 전하고자 했던 숨은 뜻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아, 그런데... 어느새 날이 이렇게 어두워졌네요... 시간을 미처 살피지 못하고 아저씨의 저녁 휴식 시간까지 뺏아서 죄송해요...

마창성:

(마창성은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과연 어둠이 이미 내려앉았고, 서쪽 하늘가에 희미한 빛줄기 몇 개만이 남아 있었다. 밤벌레 소리가 이미 여기저기서 울리기 시작했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네, 에이버리. 인연이 닿아 이야기가 잘 통하고, 또 마음속 깊이 간직해 온 것들을 나눌 수 있을 땐 시간이 참 빨리 가지. 나도 몰랐다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네 눈빛에서 흥미와 깨달음이 번뜩이는 것을 보는 것 또한 내게는 기쁨이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기지개를 켜다.)

정말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구나. 이런 이야기들과 사색들은 꺼내놓자면 끝도 없어서, 하루아침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 오늘 우리는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구나. 길 위에서 기이한 만남들, 숨은 뜻이 담긴 거절의 말들, 길을 잘못 들 뻔했던 위험, 그리고 옛 경전 속 깊은 의미의 층들까지 말이야.

아마도 여기서 잠시 멈추는 게 좋겠네. 우리 둘 다 쉬면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갖도록 말이야. 내일, 네가 여전히 듣고 싶다면, 그 삼십 년 여정의 마지막 몇 년과,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정한 대법(大法)으로 나를 이끌었던 인연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주마.

(그는 따뜻하고 격려하는 눈빛으로 에이버리를 바라보았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들은, 천천히 되새겨보렴. 너희 젊은 세대는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걸러낼 줄 알고, 겉모습 뒤에 숨겨진 핵심과 진실을 찾아낼 줄 아는 것이란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오래된 것들이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품고 있기도 하지.

자, 이제 늦기 전에 돌아갈 준비를 하려무나. 밤의 산길은 익숙하더라도 조심해야 하느니.

(그는 에이버리를 문지방까지 배웅했다. 시원한 밤 산의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풀과 나무의 향기, 그리고 하늘과 땅의 고요함을 실어 날랐다.)

에이버리 린: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오늘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셋째 날

에이버리 린:

안녕하세요, 마 아저씨. 어제에 이어 또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마창성:

(마창성은 읽던 책에서 고개를 들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에이버리를 보자 익숙하고 인자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어서 오게, 에이버리. 앉게나. 나도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오늘은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기, 삼십년이라는 긴 세월의 탐색 끝에 찾아온 진정한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걸세.

(그가 차를 따르자, 찻잔의 향이 작은 방 안에 퍼지며 창문으로 들어오는 옅은 황금빛 햇살과 어우러졌다. 분위기는 여느 때처럼 고요하고 아늑했다.)

에이버리 린:

네, 어제 아저씨께서 삼십 년간 법(法)을 찾으시던 여정 속의 기이한 만남들과 경험들에 대해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법을 얻게 되셨는지 그 인연부터 시작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창성:

(마창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익숙하고 인자한 미소가 다시 입가에 번졌고, 눈빛은 밝고 즐거워 보였다.)

수많은 세월을 떠돌고, 수많은 희망과 실망을 거듭하며, 수없이 닿을 듯하다가 놓쳐버린 끝에, 1996 년 무렵 내가 거의 흰 살이 다 되었을 때, 마침내 인연이 길을 열어주려는 듯했네.

그때 나는 내몽골(內蒙古)의 꽤 외딴 작은 절에 잠시 머물고 있었지.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으며 지내온 탓에 건강도 많이 쇠약해져 있었고. 어느 날 오후, 절 마당을 쓰는 것을 돕다가 늙은 주지 스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네. 연세가 많으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총명하셨고, 자비와 지혜가 풍겨 나왔지.

나도 그분께 내 삼십 년간의 구도 여정, 그간의 고난과 고뇌, 그리고 길을 잘못 들 뻔했던 순간들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네. 늙은 주지 스님께서는 조용히 들으시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셨지.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분은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은 마치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어.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종소리처럼 울리며 내 안의 깊은 무언가를 일깨웠지. "얘야, 창상(長行). 도를 구하는 그대의 마음이 참으로 귀하고, 인내 또한 이미 가득 찼구나. 그대의 인연도 이제 원만해질 때가 된 듯하다. 남쪽으로 가서 북경성(北京城)을 찾아가거라. 그곳에서 법을 얻게 될 것이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네. "북경에서 법을 얻는다고?" 지난 삼십 년 동안, 나는 수많은 가르침과 거절의 말을 들어왔었지.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하기를 반복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여전히 약간의 의심은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강한 예감이 솟아올랐어. 늙은 주지 스님의 말씀과 그분의 눈빛에는,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무게감과 확신이 담겨 있었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응시하며, 마치 그 운명적인 순간을 다시 사는 듯했다.)

나는 절에 며칠 더 머물며 주지 스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했네. 대도시이자 나라의 중심인 북경이, 정말로 참된 법이 나를 기다리는 곳일까? 나 같은 거지가 그 드넓은 인파 속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그 예감, 수많은 세월 동안 식어버린 줄 알았던 그 희망이 다시 불타올랐어. 나는 생각했지. 이미 삼십년을 걸어왔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 이제 비록 희미할지라도 또 하나의 희망이 생겼으니,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고. 가지 않으면, 아마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고.

그리하여, 나는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네. 늙은 주지 스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 희망과 함께 운명에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지. 내몽골에서 북경까지 가는 여정도 순탄치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몸속에서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았고,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진 듯했네.

북경에 도착하니, 내가 익숙했던 외딴 산간 지역과는 전혀 다른 화려하고 붐비는 도시였어. 나는 조용한 교외의 작은 절에 잠시 머물 곳을 구했네. 거처가 정해진 지 한 이틀 지난 후부터, 절의 잡일을 돕는 것 외에도,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조용히 관찰하고 귀를 기울였지. 마음은 초조함과 기다림으로 가득했어... 그러던 어느 이른 새벽녘까지.

(마창성의 목소리는 약간 메었고, 이 중요한 순간을 언급할 때 그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서려 있었다.)

에이버리 린:

네, 제가 알기로는 1996 년 당시 대법(大法)이 이미 대도시에서 널리 전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저씨께서 대

법을 접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그리고 처음 소개받으셨을 때 바로 알아보셨는지요?

마창성:

(마창성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가에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사람의 옅은 미소가 스쳤다.)

네 말대로,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지만, 1996 년 그 당시 대법은 이미 북경과 다른 여러 대도시에서 꽤 널리 홍전(洪傳)되고 있었던군. 하지만 당시 외딴 내몽골 산간 지역에서 막 내려와 교외의 작은 절에 머물고 있던 나에게는 그런 정보가 전혀 생소했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배우고 있는 법문(法門)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

인연은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왔다네. 북경에 도착한 후 그 막연한 희망 외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찾아 나선 것이 전혀 없었거든.

방금 말했듯이, 절에 도착한 지 한 이틀쯤 지났을 때였네. 어느 이른 새벽, 아직 밤이슬이 채 가시지 않았을 무렵, 나는 평소처럼 절의 종소리가 아닌 아주 낮은 소리에 잠이 깼어. 그것은 일종의 연공 음악이었는데, 부드럽고 맑으며 아름다운 선율 속에 지극히 강렬한 자비의 에너지가 담겨 있었지. 그 음악은 마치 기묘한 흡인력이 있는 듯, 내 영혼

의 구석구석으로 파고들어 모든 피로와 근심을 씻어주는 것 같았네. 그 소리는 절 앞마당 쪽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어.

호기심에, 나는 조용히 나가보았지.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할 말을 잃었네. 아직 희미한 여명 아래, 노인과 젊은이, 남녀를 불문하고 서른 명 남짓한 사람들이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동작을 천천히 연마하고 있었어. 그 동작들은 유연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매우 장엄하고 고풍스러워 보였지. 모두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안락함이 깃들어 있었어.

그들이 연공하는 모습을 보고, 그 동작들을 보는데, 자연스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익숙하고 가까운 느낌이 솟아올랐네. 마치 아주 먼 옛날 꿈속에서, 혹은 기억나지 않는 어느 전생의 기억 속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지. 지난 삼십 년 동안 내가 보거나 들었던 그 어떤 무술이나 기공 법문과도 달랐어. 무언가 아주 특별하고 순수한 것이 있었지.

나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저 조용히 서서 지켜보았네. 마음은 호기심과 형언할 수 없는 기대로 가득했지.

그 무리가 다섯 번째 공법인 정좌 명상으로 넘어갔을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나를 재촉하며 가까이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아무 생각도, 망설임도 없이, 나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그들 뒤편의 빈자리를 찾아 그들의 자세를 따라 앉았지. 양반다리를 틀고서 말이야.

그때 나는 그들이 무슨 공법을 연마하는지 전혀 몰랐고, 아무도 나를 부르거나 가르쳐주지 않았네. 그저 내면에서 솟아나는 강렬한 충동뿐이었지.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기적이 일어났네. 그렇게 삼십 분 남짓 정좌하고 있었을까. 그 자비로운 음악이 가져다준 지극히 고요하고 순수한 마음 상태 속에서, 나의 천목(天目)이 갑자기 열렸던 것이야!

(마창성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신성한 순간을 회상하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그것은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네, 에이버리. 이전의 꿈이나 막연한 예감과는 달랐어. 이번에는 모든 것이 현실처럼 뚜렷하고 생생하게 나타났지...

에이버리 린:

와! 첫 연공 때 바로 천목이 열리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인
데요...

그때 천목으로 무엇을 보셨기에 그렇게 크게 감동하셨나
요?... 물론 삼십 년간 도를 찾으신 분께는 천목으로 많은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기에는 충분했을 거
라고 생각해요!

마창성:

(마창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 순
간의 충격이 남아 있었다. 그는 과거의 영상들을 더 선명
하게 보려는 듯, 손을 들어 눈가를 가볍게 눌렀다.)

그렇다네, 애야. 나중에 수련에 들어서고 나서야, 공법을
처음 접할 때, 그것도 그렇게 강렬한 상태로 천목이 열린
다는 것은 실로 지극히 드문 일이며, 사부님(師父님)의 특
별한 안배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지. 아마도 내가 삼십
년 동안 고난을 견디며 끊임없이 찾아 헤맨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어느 정도 드러났기에, 이토록 큰 기연을 얻게 된
것이겠지.

천목이 갑자기 열렸을 때, 내가 처음 본 광경은 눈앞의 공간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에 대한 느린 영상이었네. 하지만 이생의 삶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의 생애들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깊은 감회에 젖어 낮아졌다.)

나는 한 전생에서 내가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중급 무장이었던 것을 똑똑히 보았네. 관운장(關雲長) 휘하에서 충성을 다했지. 그분과 함께 싸우며 생사를 넘나드는 내 모습을 보았어. 그리고 비극적인 맥성(麥城) 전투에서 관공께서 패배하셨을 때, 나 또한 그분의 곁에서 싸운 마지막 병사들 중 하나였고, 결국 그분과 함께 전사했네. 그 비장하고 늠름했던 충의의 감정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네.

그리고 또 다른 광경이 나타났지. 나는 당나라 말기의 재상(宰相)이었어. 청렴하고 정직한 관리로, 쇠락해가는 왕조를 구하고 나라를 쇄신하려는 큰 포부를 품고 있었지. 거의 십 년간 벼슬을 하며 왕에게 수많은 계책을 올렸지만, 왕은 어리석어 간신들만 믿고 간언을 듣지 않았네. 결국 시국에 환멸을 느끼고 국운이 기우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다가, 벼슬을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은거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지. 시대를 잘못 만난 충신의 슬픔, 국운을 돌이키지 못한 그 안타까움 또한 아주 생생했네.

그 두 생애 외에도 다른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만큼 뚜렷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인간의 생명이 단지 이 한 생애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했네. 우리는 끝없는 윤회의 굴레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얼마나 많은 부침을 겪어왔던가.

그러다 갑자기, 광경이 바뀌었네. 내 눈앞에는 더 이상 전생의 기억이 아니라, 지극히 휘황찬란하고 장엄한 다른 공간들이 펼쳐졌어. 이 세상에는 결코 없을 법한 재료로 만들어진 웅장한 궁전들이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보았네. 나는 지극히 단정하고 자비로우신 신(神), 부처(佛), 보살(菩薩), 나한(羅漢)들을 보았는데, 그분들의 몸에서는 찬란한 광휘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 그 광경은 인간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어떤 언어로도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다 묘사할 수 없을 정도였네.

(에이버리 린은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눈을 크게 뜨고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마창성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실함을 느꼈다. 영적인 세계의 기적에 대한 깊은 믿음, 더 높은 경지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자신의 수련의 길에서 더욱 정진하고 싶은 충동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아마도 마창성의 기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해와 격려가 담긴

눈빛을 보내는 것이 그녀가 이 순간 표현할 수 있는 전부였을 것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네, 에이버리. 내가 그 신성한 광경에 넋을 잃고 있을 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내 시선이 무심코 함께 명상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했네. 나는 그들 사이에 연결된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들을 얼핏 보았어. 그리고 앞줄에 앉아 있던 한 여성 동수(同修)를 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새로 온 사람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도와주는 분이었지. 나는 문득 한 전생의 광경을 보았네. 그 여성 동수는 전생에 내 아내였고, 그녀 옆에 앉아 있던 남자, 즉 이생의 그녀의 남편은, 전생에 무관(武官)이자 당나라 시절 내 정적(情敵)으로, 나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을 안겨주었던 사람이었어.

(마창성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동시에 깊은 이해가 섞여 있었다.)

이것은 나 혼자 조용히 알고 있을 뿐,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네. 내가 여기서 자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연의 오묘함을 증명하고, 또한 전생의 원한 관계를 선하게 풀어주어, 서로 인연과 빛이 있던 사람들이 같은 법문 안에서 함께 수련할 수 있게 해주는 대법의 자비를 보여주기 위함일세.

내 자신의 전생, 휘황찬란한 다른 공간들, 그리고 동수들의 인연까지, 그 모든 광경들이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났지만, 그것은 내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네.

음악이 끝나고 사람들이 천천히 자세를 풀 때, 나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지. 한 중년 여성이, 바로 내가 방금 전생에서 보았던 그 여성 동수였는데,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아주 친절하게 안부를 물었네. 그녀는 내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네주었는데, 딱딱한 표지도 없이 그저 종이 몇 장을 소박하게 묶어놓은 것이었어. 그녀는 이것이 수련을 지도하는 책이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가져가서 읽어보라고 말했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책을 받아 들었네. 그때는 아직 책 제목이 무엇인지도 몰랐지. 하지만 나중에 첫 구절을 읽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천목이 열렸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 나를 덮쳤네. 그 책의 구절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곧장 파고들며, 내가 삼십 년간 도를 찾아 헤매며 품어왔던 모든 의문과 고뇌를 해결해주었어. 그것은 우주에 대해, 생명에 대해, 인간으로 사는 의미에 대해, 진정한 수련의 길에 대해, 그리고 진(眞)·선(善)·인(忍)에 대해 말하고 있었지... 내가 그토록 갈망하며 찾아왔던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이 책 안에 있었던 게야.

나는 바로 알아보았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법이며, 꿈속의 고승께서 말씀하셨던 참된 스승(眞師)이며, 내가 삼십 년간 험난한 길을 걸어 찾아 헤맨 바로 그 목적지라는 것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 그것은 고통이나 실망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표류 끝에 마침내 정박할 곳을 찾은 기쁨과 지극한 환희의 눈물이었어. 나는 감사함에 울었네. 중생을 구도하시기 위해 이 대법을 자비롭게 전해주시는 위대한 스승님께 감사했고, 내 인생의 말년에 법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기묘한 안배에 감사했지.

(마창성은 손을 들어 방금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을 서둘러 닦아냈다.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당사자만이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무한한 행복과 평온함이 빛나고 있었다.)

에이버리 린:

네, 삼십 년간 비바람을 맞으며 사방을 떠돌은 끝에 대법을 얻으시고, 또 천목이 열려 비장하면서도 신성한 광경들

을 보시고, 심지어 인연까지 보셨으니... 사람의 마음이 크게 흔들릴 만도 하네요...

저도 비슷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한 여성 동수께서 처음으로 공원에서 사람들과 함께 연공하러 가셨는데, 아저씨처럼 다섯 번째 공법을 연마하시다가 천목이 열리셨대요. 그분은 자신이 그 천국의 최고 신이었던 천국 광경을 보셨다고 해요... 수많은 겁의 윤회 속에서 해마다 마침내 진정한 '집'을 찾은 느낌이셨대요... 그런 광경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흘러나왔다고...

그때 다른 동수들은 그분이 우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수련하느라 다리가 너무 아파서 우는 줄 알고, "언니, 다리가 너무 아프면 푸세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라고 위로해주었대요.

마창성:

(마창성은 깊은 공감과 이해가 담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가에는 여전히 행복의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네 말이 정말 맞다. 그 충격적인 느낌은 단순히 기이한 일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라, 기나긴 탐색 과정 전체가 터져 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지. 지난 세월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영적인 세계는 실재한다는, 그리고 보통

사람의 모든 인식을 뛰어넘는 고차원의 법리가 존재한다는 절대적인 확신이었네.

자네가 말한 그 여성 동수의 이야기를 들으니 아주 공감이가는구나. 정말 그렇다네, 에이버리. 천목이 열려 세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을 보고, 또 자신의 근원과 인연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면, 그 감동은 정말 강렬해서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지. 눈물은 육체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깨우쳐 주신 사부님과 대법에 대한 무한한 행복과 감사함 때문에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라네.

(그는 에이버리의 이야기 속 동수들의 사랑스러운 오해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저었다.)

다른 동수들이 그녀가 양반다리를 하다가 아파서 우는 거라고 오해한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지. 비슷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천목이 열린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내면세계와 경지들을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그들은 그저 세상의 평범한 경험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 뿐이지.

나 자신도 그때, 행복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 그 여성 동수(내가 전생의 아내로 보았던)도 조금 당황스러워했네. 그녀는 아마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처음 접하고 감동했거나,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친절하게

안부를 물었지. 나도 내가 방금 겪고 본 것들을 그녀에게 어떻게 다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네. 나는 그저 더듬거리며 감사하다고, 귀한 책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

그 책, 나중이야 『전법륜(轉法輪)』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내 운명 전체, 내 인식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네. 수많은 근심과 번뇌,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안고 떠돌던 거지에서, 나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지.

그 후의 세월, 1996년부터 1999년 중반까지의 삼 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간이었네. 나는 법(法)에 흠뻑 빠져 매일 법을 배우고 연공하는 데 전념했지. 내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었어. 나는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인간으로 사는 목적이 이 속세에서 다투고 향락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수련을 통해 본래의 나로 돌아가고 선천적인 본성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지.

대법의 진(眞)·선(善)·인(忍) 원리는 감로수처럼 내 영혼을 씻어주었네. 나는 자신을 법에 비추어보며, 좋지 않은 생각과 행동, 수많은 세월 동안 마음속 깊이 뿌리박힌 집착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려 노력했지. 내 건강도 기적적으로 좋아졌어.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고 제대로 먹지 못해 생

졌던 만성 질병들이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마음 또한 온화하고 너그러워졌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아름다웠던 시절을 회상하며 먼 곳을 향해 있었다.)

그때 북경의 수련 분위기는 정말 활기차고 순수했다네, 애야. 매일 이른 아침과 저녁이면, 도시 곳곳의 공원, 광장, 공공장소들은 연공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지. 아름답고 자비로운 연공 음악이 사방에 울려 퍼졌어. 간부, 공무원, 지식인부터 평범한 노동자, 노인, 젊은이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지극히 화목하고 순수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수련했네. 누구 하나 시키는 사람 없이, 모두가 자각적으로 대법을 수련할 기연을 소중히 여겼지. 그런 광경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더욱 감동하고 믿음이 굳건해졌네.

그것은 실로 황금 같은 세월이었어. 거대한 폭풍이 닥치기 전의 귀중한 평온이었지.

(여기까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한 줄기 우수가 그의 눈빛을 스쳐 지나갔다.)

에이버리 린:

그 시절은 아저씨처럼 직접 겪으신 분들께는 정말 휘황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겠네요... 저는 그때 겨우 네 다섯 살이라 아무것도 몰랐고, 1999 년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에 가족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천목에 대해서는, 제 깨달음으로는 천목이 열린 사람에게는 이로운 점도 있지만 동시에 불리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로운 점은 수련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준다는 것이고, 해로운 점은 '환상'이나 이른바 '마음에서 마(魔)가 생겨나는' 상황에 빠지기 쉬워서 길을 잘못 들게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마창성:

(마창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또한 아주 어릴 때 고향을 떠났고, 운 좋게도 박해의 암흑기를 피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에이버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동질감이 더해졌다.)

그렇다면 자네도 특별한 인연이 있었구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사부님께서 떠나도록 안내해주신 것이지. 그것 또한 큰 복이라네.

그리고 천목에 대한 이야기는, 네 말이 아주 일리가 있네. 천목이 열리는 것의 이점과 폐해에 대한 자네의 깨달음 또한 매우 깊구나. 정말 그렇다네, 에이버리.

이로운 점은, 네 말처럼, 믿음을 더 굳건히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 내게 있어 대법을 처음 접했을 때 천목이 열리고, 전생의 광경과 다른 공간들을 본 것은, 대법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실이며 초상적(超常的)이라는 강력한 확증과도 같았네. 그것은 삼십 년간의 탐색 끝에 남아있던 모든 의심을 씻어주었고, 내가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수련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굳건히 믿게 해주었지. 또한 그것은 내가 이전에는 경전이나 기이한 만남을 통해서만 막연하게 느낄 수 있었던 윤회, 인연, 그리고 신불(神佛)의 존재에 대해 더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네.

하지만 불리한 점 또한 작지 않네. 만약 수련자가 심성(心性)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정법(正法)의 지도가 없다면 말이야. 네 말처럼, '환상'이나 '마음에서 마가 생겨나는' 상황에 빠지기 아주 쉽지. 천목이 열리면 기이한 광경을 보거나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네. 만약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에 이끌리기 쉽고, 자신이 이미 높이 수련했다거나 이런저런 공능(功能)과 능력이 있다고 여기게 되지. 거기서부터 과시하려는 마음, 자만심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저차원의 생명이나 사령(邪靈)에게 이용당하고 속아서 잘못된 정보를 받아 수련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네.

나 또한 그런 경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네. 천목으로 약간의 공능이 생겼지만 자신을 지킬 줄 몰라서, 결국 자신이 본 것에 미혹되어 심지어는 법(法)에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 말일세.

그러므로 박해가 닥쳐오기 직전 사부님께서 내 천목이 점차 달히도록 안내해주신 것은, 실로 지극히 큰 보호였다는 것을 깨달았네. 왜냐하면 박해라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만약 천목이 계속 열려 있었다면, 마(魔)가 연화(演化)시킨 거짓된 광경에 동요되거나, 동수들의 고난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 굳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을 테니까.

천목이 달히자, 나는 안으로 향하여 오로지 법을 배우고 심성을 수련하며, 자신을 진(眞)·선(善)·인(忍) 원리에 대조하는 데 완전히 집중해야만 했네. 모든 판단과 행동은 내가 '보거나' '들은'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해야만 했지. 그것이 내가 훗날의 생사 시련 속에서 맑은 정신과 굳건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네.

우리 대법은 실질적으로 심성을 수련하는 것이고, 우주 특성인 진·선·인에 동화되는 것이지, 공능이나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네. 공능은 단지 수련 과정의 부산물일 뿐이고, 심성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야. 만약 그것에 집착하고 추구한다면, 오히려 길을 돌아가거나 심지어는 길을 잃게 되지.

사부님께서는 『전법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네. 진정한 수련자는 '구하는 바가 없어도 스스로 얻게 된다(無所求而自得)'고 하셨지. 그저 법에 따라 굳건히 심성을 수련하면, 있어야 할 것은 자연스럽게 되고, 보지 말아야 할 것, 알지 말아야 할 것은 사부님께서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세.

(마창성은 사부님의 안배에 대한 깊은 지혜와 감사함으로 말했다. 그는 격려하는 눈빛으로 에이버리를 바라보았다.)

이 문제에 대한 자네의 깨달음을 보니, 자네가 법 공부를 아주 깊이 했구나. 그것은 매우 귀한 것이라네.

에이버리 린:

그럼 그 휘황찬란했던 시절, 1999 년 '폭풍'이 닥치기 전

에 동수들과 함께했던 수련 경험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신가요?

마창성:

(마창성은 동수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그 시절은 비록 짧았지만, 동수들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에 남는 수련 경험으로 가득했네. 그것은 모두가 함께 정진하고, 조금의 사심도 없이 서로 돕는 아주 순수한 환경이었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단체 법 공부 시간이었네. 아침이나 저녁 연공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종종 작은 그룹으로 모여,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어느 동수의 집에서, 함께 『전법륜』을 읽고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곤 했지. 그때의 분위기는 장엄하면서도 아주 개방적이었어.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진심으로 법에서 깨달은 것, 심성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또는 수련 후 삶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나누었네.

글을 많이 배우지 못한 나이 드신 동수들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나누는 말씀은 아주 진실하고 소박해서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지. 지식인 동수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과학이

나 철학의 관점에서 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누어주어 모두의 인식을 넓혀주었네. 나는 그런 나눔의 시간을 통해 아주 많은 것을 배웠어. 그것은 내가 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수들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해주었지.

그리고 함께 법을 널리 알리러 다녔던 일들도 생각나는군. 그때는 모두가 대법의 좋음을 느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좋은 것을 가족, 친구, 그리고 인연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네. 우리는 법륜공을 소개하는 전단지과 작은 책자들을 가지고 공공장소나 외진 시골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소개했어. 강요는 전혀 없었고, 단지 다른 사람들도 법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진실한 마음뿐이었지.

한 번은 한 무리의 동수들과 함께 북경 교외의 꽤 가난한 시골 마을에 간 적이 있네. 그곳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하며 의심했지. 하지만 우리가 끈기 있게 설명하고, 수련이 어떻게 건강을 개선하고 도덕성을 높여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함께 몇 가지 공법 동작을 연마해보자, 점차 그들도 마음을 열었네. 법을 접하며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소박한 미소와 희망으로 빛나는 눈빛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은 한없이 따뜻해졌지.

이해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었네. 하지만 동수들은 모두 선량함과 인내심으로 설명하고 갈등을 풀어나갔지.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각자의 심성이 또 한 단계 향상되었던 게야.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은, 동수들 사이의 사심 없는 관심과 도움이었네. 누군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수련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손익을 따지지 않고 기꺼이 나누고, 격려하며, 도와주었어. 그 동수 간의 정은 아주 순수하고 맑았네. 바깥세상의 사회적 관계와는 달랐지. 모두가 서로를 한 가족처럼 여기며, 같은 길을 가고, 수련하여 돌아간다는 같은 목적을 공유했네.

나는 처음 며칠 동안 나를 아주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었던 그 여성 동수(내가 전생에서 보았던)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네. 그녀는 시간을 아끼지 않고, 끈기 있게 내게 동작 하나하나를 가르쳐주고, 법의 의미 하나하나를 설명해주었지. 또 다른 동수들은, 내가 멀리서 왔고 친척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자주 안부를 묻고 필요한 물건들을 도와주곤 했네. 그런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금쪽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지.

(마창성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에 약간의 아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 시절은, 실로 이상적인 수련 환경이었고, 인간 세상 속의 한 조각 정토(淨土)였네. 모두가 진(眞)·선(善)·인(忍)으로 서로를 대하며, 다툼이나 질투 없이, 오직 화목함과 함께 정진하는 마음뿐이었지. 바로 그 순정(純正)한 에너지장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심성과 건강 양면에서 빠르게 향상되도록 도와주었네.

안타깝게도, 그 아름다움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지.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구나(樹欲靜而風不止)." 사악한 자들은 그렇게 선량한 것이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게야.

(방 안의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마창성과 에이버리 모두 그 휘황찬란했던 세월 뒤에 닥쳐올 일들을 생각하며 가슴 저미는 슬픔을 느꼈다.)

에이버리 린:

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정말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 격이었네요... 당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왜 대법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망상에 사로잡혀 질투심을 증폭시켜 화산 폭발처럼 악을 터뜨렸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산증인으로서, 아저씨께서 직접 겪으시거나 목격하신 일 중에 대법의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무사했다거나, 중병에 걸려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돌려보냈는데, 진심으로 대법을 수련하니 빠르게 병이 나았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요.

마창성:

(마창성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해의 불합리함과 잔인함을 언급할 때 그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스쳤다. 그리고 그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평정을 되찾으려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네 말대로, 당시 집권자들의 광기는 보통의 논리로는 정말 설명하기 어렵네. 아마도 대법의 아름다움, 순수함, 그리고 거대한 정신적 힘이, 질투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어두운 마음을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했을 게야.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

하지만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은 제쳐두고, 박해 이전의 수련 기간 동안, 나 또한 대법의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적지 않은 이야기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네. 그것은 뜬소문이 아니라, 실제 인물과 실제 사건들이었지.

(그는 기억을 정리하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나와 같은 연공장에서 수련하시던 일흔 가까이 된 할머니 한 분이 기억나는군. 그 할머니는 심장병이 아주 심해서 크고 작은 병원을 수없이 다녔지만, 의사들은 모두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고 약으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다며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권했었네. 자식들도 이미 장례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그분께 대법을 소개해 주었네. 처음에는 할머니가 너무 쇠약해서 제대로 걸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연공장에 오셔야 했어. 연공도 많이 하지 못하고, 그저 앉아서 음악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법을 읽는 것을 따라 중얼거리려고 애쓰실 뿐이었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꾸준히 한 달 정도 지나자 할머니의 얼굴색이 점차 혈색이 돌기 시작했네.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셨고, 첫 번째 공법의 가벼운 동작들을 따라 할 수 있게 되셨지. 약 석 달 후, 할머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들은 모두 경악했네. 치료가 불가능해 보였던 그분의 심장병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호전되었던 것이야. 더 이상 약을 드실 필요도 없었고, 몸은 건강해지고 걸음걸이도 빨라지셨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법을 널리 알리는 활동에도 참여하셨네. 믿지 않던 그분의 자식들도 이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지.

또 장거리 트럭 운전을 하던 한 청년의 이야기도 있네. 그가 말하길, 한번은 야간 운전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하더군. 무거운 트럭이 중심을 잃고 길가의 꽤 깊은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져 몇 바퀴를 굴렀다고 해.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찌그러진 운전석에 갇혀 있는 자신을 발견했는데, 신기하게도 온몸에 긁힌 상처 하나 없이 약간 어지러울 뿐이었다고 하네. 그 끔찍한 사고를 본 행인들은 모두 그가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끌어냈을 때, 그가 무사한 것을 보고는 모두 감탄했다고 하네. 그는 트럭이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질 때, 몽롱한 상태에서 그저 자신이 수련하던 사부님과 법륜대법(法輪大法)을 생각했을 뿐이라고 했어. 그는 사부님께서 그 위험한 순간에 자신을 보호해주셨다고 믿었지. 나중에 트럭을 감정해보니, 운전석이 거의 박살 나 있었고, 운전자가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못했다고 하네.

나 자신도, 이미 말했듯이, 수많은 세월을 떠돌며 건강이 많이 쇠약해졌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혹독한 날씨에 시달려 온갖 병을 앓고 있었네. 하지만 대법을 수련한 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병들이 어느새 차례로 사라졌지. 몸은 가벼워지고 정신은 상쾌해져, 마치 환골탈태한 것 같았어. 이전에는 날씨가 궂어지기만 하면 온몸이 쭈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네. 그것은 어떤 약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심성을 수련하고 다섯 가지 공법을 연마한 것의 기적 덕분이었지.

그런 이야기들은 아주 많다네, 에이버리. 그것들은 대법의 초상적임에 대한 생생한 증거들이지. 그것은 단순히 건강을 단련하는 기공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의 신체를 정화하고 심성을 향상시키며, 위난에 처했을 때 사부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수련의 길이라네.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고 수련에 들어서게 된 것이지.

(마창성은 대법이 가져다준 기적 같은 일들을 언급하며, 확고한 믿음과 빛나는 눈빛으로 말했다.)

에이버리 린:

대법의 신비로움은 아마 직접 체험한 사람만이 뚜렷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외부인이 이야기를 들으면 "반신반

의"하거나, 심지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
죠...

저 자신도 십 년 넘게 대법을 수련해왔지만, 아저씨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들을 직접 겪어본 적은 없고, 그저
깨달음과 믿음에 의지해서 수련해왔을 뿐이에요...

마창성:

(마창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인자한 눈빛에는 에이버
리를 향한 깊은 이해와 격려가 담겨 있었다.)

네 말이 정말 맞다.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
고, 백 번 보는 것이 한 번 겪는 것만 못하다." 대법의 신비
로움, 그것이 가져다주는 기적들은, 실로 당사자, 스스로
체험해 본 사람만이 가장 온전하고 깊이 있게 느낄 수 있
는 법이지. 외부인들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들의 마음
이 충분히 열려있지 않거나, 고정관념이나 실증과학의 편
견에 가려져 있다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꾸
며낸 이야기,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네.

자네가 십 년 넘게 대법을 수련해오면서, 내가 말한 것과
같은 충격적인 일들을 직접 겪지 않았음에도, 주로 깨달음
과 믿음에 의지하여 꾸준히 해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욱 귀한 것이라네, 에이버리. 그것은 자네의 근기(根基)가 아주 좋고, 법(法)과의 선연(善緣)이 매우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야.

그거 아는가? 사부님께서는 각자의 수련의 길이 다르고, 각자에 대한 안배 또한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네. 모든 사람이 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생사의 시련을 겪어야만 수련하여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법을 읽고, 자신의 심성과 대조하며, 꾸준히 연공하는 것만으로도, 점차 안에서부터 밖으로 향상되고 변화를 이룰 수 있지.

자네의 그 '믿음', 즉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공능이나 기적에 의존하지 않고, 법리에 대한 진정한 인식과 사부님의 위대함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굳건한 '믿음'일세. 그것은 어려움이나 유혹, 세상 사람들의 험담에 쉽게 흔들리지 않지.

나 자신도, 비록 많은 것을 목격했지만, 그것들은 단지 초기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네. 수련의 근본은 여전히 이 마음을 진정으로 닦는 것이고, 매 생각과 행동 속에서 진(眞)·선(善)·인(忍)에 대조하는 것이어

야 하네. 만약 외부의 기적에만 의지하고 마음 닦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그것 또한 진정으로 향상될 수 없지.

그러니, 자네는 그저 자네의 길에 따라 굳건히 수련해나가게. 각자 법을 실증하는 방식이 있다네. 어떤 사람은 건강의 기적적인 변화로 법을 실증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는 굳건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상 경지의 승화나 법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실증하지. 이 모든 것이 대법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을 표현하는 것이라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초심을 굳게 지키고 있는지, 법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지, 수련하여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한지 하는 것이야. 만약 그 마음이 있다면, 사부님께서는 항상 곁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매 걸음마다 보호해주실 걸세.

(마창성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에이버리를 향한 깊은 신뢰로 가득했다. 그는 에이버리와 같은 젊은 세대가 대법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기뻐했다.)

에이버리 린: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날도 곧 어두워질 테니, 오늘은 여기서 잠시 멈추는 게 좋겠어요. 법을 얻게 된 인연과 1996 년부터 1999 년까지 중국의 수련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폭풍'이 닥쳤을 때의 끔찍한 광경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산증인으로서 아저씨께서 직접 보고 들으신 것들을 나눠주시겠어요?

마창성:

(마창성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과연 붉은 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하며 나뭇가지 위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내일 이야기할 것들을 생각하며 눈가에 스치는 한 줄기 우수와 함께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구나. 네 말이 맞다, 벌써 해가 저물고 있구나. 그 평화로웠던 수련 시절의 기억들은, 비록 아름답지만, 곧 닥쳐올 더 큰 시련을 위한 준비이기도 했지.

오늘, 우리는 함께 나의 삼십 년간의 탐색 여정을 되돌아보았고, 특히 운 좋게 대법을 만나고, 순수한 수련 분위기 속에서 살며, 법이 가져다준 깊은 변화들을 경험한 그 기

연에 대해 이야기했네. 나 또한 이런 것들을 자네와 나눌 수 있어서 아주 기뻐다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내일, 우리는 또 다른 시기, 즉 시련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시기 – 그 '폭풍'이 닥쳐왔을 때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걸세.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 겪었던 것들을 최대한 이야기해주겠네. 자네와, 그리고 아마도 훗날의 독자들이 박해의 사악함, 그리고 대궐난 속에서도 굳건했던 진정한 대법 제자들의 인내와 자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것은 그다지 즐거운 이야기는 아닐 테지만, 대법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고, 또한 내 수련 여정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하네.

자, 이제 돌아가서 쉬려무나. 내일 오후에 다시 보세.

(마창성은 에이버리를 문밖까지 배웅했다. 곧 되살아날 아픈 기억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무거웠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또한 사악함을 폭로하고 올바름을 증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그것이 바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넷째 날

에이버리 린:

안녕하세요, 마 아저씨. 또 왔습니다...

어제 아저씨께서 1996 년부터 1999 년까지, 즉 법을 얻으실 인연이 닿았을 때부터 탄압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간에 대해 나눠주시는 걸 들었어요...

오늘은 그 '폭풍' 이전의 배경과, 그 이후의 여정에 대해 이어서 나눠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마창성:

(그는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여전히 차분하고 깊은 눈빛을 유지했다.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오게, 에이버리 린. 왔게나. 나도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음, 어제 우리는 참 특별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지... 대법의 빛이 환히 비추어 수많은 영혼들이 가야 할 길을 찾았던 그 시절 말일세.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지만, 그것은 비탄이 아니라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자네가 '폭풍' 이전의 배경과 그 이후의 여정에 대해 듣고 싶다고 했지... 좋네. 그것은 하늘과 땅도 변하는 듯했고, 사람들의 마음 또한 거대한 시련을 겪었던 시기였네.

자네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주자면, 거센 폭풍이 닥치기 전, 우리 대법 수련자들에 대한 중국의 분위기는… 그거 아는가, 그때는 아주 달랐다네.

(그는 생생한 기억들을 그러모으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1999 년 이전, 특히 1994 년, 1995 년경부터 법륜대법은 아주 널리 홍전(洪傳)되었네. 도시에서 농촌까지, 지식인에서 평범한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사람들이 연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 공원, 화원, 학교 운동장 등 곳곳에 공공 연공장이 생겨났고… 이른 아침과 저녁이면, 아름다운 연공 음악 소리와 느리고 평온하며 부드러운 동작들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아주 아름다운 한 부분이 되었네.

내가 보기에 가장 귀했던 것은, 바로 각자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였지. 사람들은 '진(眞)·선(善)·인(忍)' 원리에 따라 사는 법을 배웠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알게 되면서, 가정과 사회의 갈등도 자연스레 해소되었네. 건강은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치료가 불가능해 보였던 많은 환자들이 삶의 기쁨을 되찾았지. 누가 소리 높여 외치거나 강요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자발적이었으며, 대법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실제적인 체험과 이로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네.

당시 정부 자체도 여러 곳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네. 그들은 국민이 더 건강해지고, 사회가 더 안정되며, 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보았고... 표창장이나 긍정적인 신문 기사도 있었지. 모든 것이 아주 좋고 순수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 보였네.

(마창성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 한 줄기 우수가 스쳤다.)

하지만...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작은 조각구름에 불과했지만, 점차 한데 모여 거센 폭풍이 일어날 것을 예고했네. 우리가 바로 그 '폭풍'과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 징후들에 대해 먼저 들어보겠는가?

에이버리 린:

네, 그렇다면 그때 아저씨와 주변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감정은 어떠셨는지 나눠주실 수 있나요?

마창성:

음, 그때의 마음가짐과 감정에 대해 말하자면... 여러 감정이 교차했었지, 에이버리 린.

처음 징후들이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 몇몇 지방 신문에 법륜공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꽤 놀랐고, 심지어는 믿지 않았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법륜공이 사람들에게 선을 향하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며, 사회에 건강과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몇몇 기자의 오해이거나, 누군가 이해하지 못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쓴 것이라고 생각했지.

당시 대다수 수련생들의 일반적인 마음가짐은 여전히 아주 순수하고 선의에 차 있었네. 우리는 아름다움을 믿었고, 우리가 진실하고 선량하다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믿었지.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신문사를 찾아가거나 관련 기관에 편지를 써서 법륜공이 무엇이며 그 이로움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네. 모든 것이 오직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하나의 소망으로, 평화롭게 이루어졌지.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굳건히 수련했고, 매일 공원에 나가 연공하고 함께 법을 공부했네. 사부님과 대법에 대한 믿음은 아주 컸지. 우리는 진(眞)·선(善)·인(忍)이 보편적인 가치이며, 결코 틀릴 수 없다고 믿었어. 때로는, 아, 이것 또한 우리 수련자들의 심성이 굳건한지, 좋지 않은 말들 앞에서 선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련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네.

하지만, 에이버리 린,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상부에서 각 기관과 단위에 법륜공 수련자들을 '주시'하라는 암묵적인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일부 사람들, 특히 이전에 정치 운동을 겪었던 나이 드신 분들은 약간의 걱정을 느끼기 시작했네. 그들은 무언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지. 법 공부 그룹에서 작은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은 걱정을 나누기도 했지만, 결국 대법의 정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주를 이루었네.

당시 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겪었던 일들과 법에서 깨달은 것들을 통해, 좋지 않은 에너지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네. 나는 이 세상에서 전해지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특히 말법(末法) 시기에는, 반드시 마난(魔難)을 겪게 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는 낡은 세력의 교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지. 그때 내 마음

은 평정을 유지하고 관찰하며, 나 자신과 주변 동수들에게 더욱 정진하고, 더욱 법을 스승으로 삼아 자신의 행위를 진·선·인에 대조해야 한다고 되새기려 노력했네.

감정은 아마도 혼합된 것이었을 게야. 수련자의 평온함과 믿음이 있으면서도, 좋은 것들이 오해받고 의도적으로 왜곡되는 것을 보며 약간의 우려도 있었지. 하지만 폭력으로 대응하려는 두려움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무기, 즉 선량함과 진실만이 있었을 뿐이야.

그것은 진짜 '폭풍'이 닥치기 전의 시기, 불안의 파도가 일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순수한 선량함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했던 시기였네.

에이버리 린:

제가 읽은 역사 정보에 따르면 당시 상황이 매우 긴장되어, 수만 명이 중남해(中南海) 밖에서 평화적인 청원을 하는 사건으로 이어졌고, 나중에 중공(中共)은 이것을 빌미 중 하나로 삼아 "법륜공이 반동적인 의도로 중남해를 포위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아저씨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 평화적인 청원에 참여하셨나요?

마창성: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이 조금 더 진지해졌다.)

네, 에이버리 린, 자네 말이 맞네. 1999 년 4 월 25 일 사건은 하나의 전환점이었고, 그때부터 상황이 아주 빠르게 바뀌었지.

그전에는, 내가 말했듯이, 비방하는 글들이나 암묵적인 교란들이 있었네. 하지만 사건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허쥔슈(何祚庥)라는 학자가 톈진(天津)의 한 청소년 과학 잡지에 법륜공을 비방하는 글을 실으면서부터였어. 톈진의 수련생들은 그 잡지사를 찾아가 평화롭게 설명하며 진실을 바로잡으려 했네. 그들은 단지 잡지사가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고 법륜공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를 바랐을 뿐이야.

하지만 대화 대신, 톈진 정부는 폭동 진압 경찰을 동원하여 일부 수련생들을 체포하고 구타했네. 다른 수련생들이 석방을 요구하러 가자, 톈진 경찰은 체포 명령이 북경에서 내려왔으며, 해결하고 싶다면 북경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대답했지.

바로 그 말 한마디와, 수련생들이 부당하게 체포된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들었네. 우리 수련자들은 정치적인 목적도 없고, 누구에게 맞서려는 의도도 없었어. 우리는 단지 진(眞)·선(善)·인(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수련하기를 바랐고, 우리 사부님께서 존중받으시고 대법서적이 합법적으로 출판되기를 바랐을 뿐이야.

텐진 사건에 대한 소식이 퍼지자, 나를 포함한 여러 지역의 많은 수련생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감을 느꼈네. 우리는 조직도 없었고, 누구 하나 나서서 사람을 모으지도 않았지. 그것은 정부가 국민의 정당한 염원을 들어줄 것이라는 양심과 믿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행동이었네.

(마창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날, 나도 북경에 있었네. 우리가 청원서를 제출하는 곳으로 알고 있던 국가신방국(國家信訪局) 근처였지. 나를 비롯한 수만 명의 수련생들이 각지에서 모여들었어. 내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고, 또한 훗날 가장 많이 왜곡된 것은, 바로 그 군중의 놀라울 정도로 평화롭고 질서 정연한 모습이었네.

우리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거리를 따라 인도에 조용히 서 있었네. 구호를 외치는 소리도, 선동적인 현수막도, 밀치는 행위도, 교통을 방해하는 일도 전혀 없었지. 모두가 자발적으로 위생을 지켰고, 심지어 경찰이 피우고 버린 담배 공초까지 깨끗이 주웠네. 많은 사람들이 대법 서적을 들고 와 조용히 읽었어. 분위기는 아주 고요하고 장엄했으며, 오직 대화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하나의 염원만이 있었을 뿐이야.

훗날 그들이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소위 "중남해 포위"라는 것은, 실은 노골적인 날조이자 왜곡이었네, 에이버리 린. 중남해는 중앙 지도부의 업무 공간이라 아주 민감한 지역이지. 어떤 수련생도 "포위"하려는 의도나 행동을 한 적이 없었어. 우리는 경찰이 안내한 위치, 즉 중남해 정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었네. 게다가 만약 그들의 말처럼 '반동적인 의도'를 가진 '포위'였다면, 중국 공산당의 본성상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곳에 서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고 즉각적인 강력한 진압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저희의 목적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텐진에서 부당하게 체포된 수련생들을 석방하고, 법륜공 서적의 합법적인

출판을 허용하며, 법률통 수련생들에게 합법적이고 방해 받지 않는 수련 환경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날,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직접 나와 몇몇 수련생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었네. 만남이 끝난 후, 텐진의 수련생들은 석방되었고, 상황은 잠시 진정되는 듯 보였지. 모두가 조용히 돌아갔고, 자신들이 서 있던 자리를 깨끗이 치웠으며, 쓰레기 한 조각 남기지 않았네.

그때,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선량함과 평화로움이 받아들여졌고, 정부가 좀 더 공정한 시각을 가질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이 싹텄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 정권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는 바로는, 이것이 더 큰 폭풍 전의 고요함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지. 왜냐하면 대법의 빠른 발전과 그것이 가져온 정신적 가치들이, 그들의 무신론과 계급 투쟁 이데올로기와는 완전히 대립되었기 때문에, 당내 일부 권력자들이 질투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불(神佛)을 믿고, 진·선·인을 숭상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네. 그들은 그것을 '미신'이자 자신들의 사상 통제에 반하는 것이라고 여겼지.

훗날의 "중남해 포위"라는 빌미는,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암암리에 준비해 온 잔혹한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수많은 거짓말 중 하나에 불과했네.

에이버리 린:

그럼 탄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아저씨께서 목격하신 구체적인 광경이나 사건 몇 가지를 나눠주시겠어요?

마창성: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의 두 눈은 그 격동의 세월로 돌아간 듯 먼 곳을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1999 년 7 월 20 일, 탄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에이버리 린, 그것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네. 4.25 사건 이후의 희미한 희망에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뒤덮이는 악몽으로 변해버렸지.

나는 똑똑히 기억하네. 그날 이른 아침, 그리고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중앙 및 지방 텔레비전 채널, 모든 라디오 방송, 모든 신문 지면이, 마치 하나의 명령이라도 받은 듯, 일제

히 법륜공과 우리 사부님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내용의 프로그램과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어. 악랄한 언사, 노골적으로 날조된 이야기, 짜깁기되고 연출된 영상들... 그것들이 밤낮으로 반복되었지. 사회 분위기는 순식간에 숨 막히고, 의심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네. 이웃, 동료, 심지어는 친척들까지, 이전에 법륜공이 좋다고 웃으며 인사하고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 어떤 이는 두려워했고, 어떤 이는 멀리했으며, 어떤 이는 그 선전을 믿고 비난하기 시작했지. 마치 온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광경은, 우리가 그 헌신에 대해 깊이 존경했던, 연공장을 자발적으로 조직하던 보도원(輔導員)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이었네. 수련생들 사이에서는 소식이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어. 이 사람은 어젯밤에 체포되었고, 저 사람은 공안에 소환된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나는 한번은 공안이 우리 동네의 보도원이었던 한 동수의 집에 들이닥치는 장면을 목격했네. 그때는 새벽 2~3시경이었지.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그리고 어린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 아내의 애원하는 소리... 그들은 집안을 온통 뒤지고, 대법 서적과 사부님 사진을 압수하고는, 그 동수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갔네. 밤중에 경찰차 불빛이 번쩍이며, 목격자들의 마음에 소름 끼

치는 침묵과 공포를 남겼지. 우리는 이것이 더 이상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탄압이라는 것을 알았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 수련의 기쁨을 함께 나누던 공공연공장들은, 갑자기 감시받는 장소가 되었네. 경찰과 민간방위대원들이 그곳에 가득 서 있었지. 가까이 가는 사람은 누구든 쫓겨나고, 이름이 기록되었으며, 억지로 연공하려 하면 체포되기까지 했어.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대법 서적들, 아름다운 연공 음악 테이프들이, 갑자기 '범죄 증거물'이 되어버렸지. 많은 가정이 공안과 동네 간부들에게 가택 수색을 당하고 물건을 압수당했네. 어떤 사람은 설명하려 애썼고, 어떤 사람은 책들이 거칠게 자루에 던져지는 것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 그들은 우리에게 책을 제출하고,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했어. 그렇지 않으면 직장을 잃고, 자녀는 학교에 갈 수 없으며,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이라고...

압박은 각 개인, 각 가정에 무겁게 짓눌렸네. 단지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을 원했을 뿐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신념과 일상생활 사이에서, 진실과 자신 및 가족의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안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 그것은 두려움, 혼란, 고통, 그리고 (평화롭게 억눌렸지만) 분노가 많은 사람들을 뒤덮었던 시기였네.

당시 나 자신도, 다른 많은 동수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비통함을 느꼈네. 사부님께서 중상모략당하시는 것에 비통했고, 대법이 더럽혀지는 것에 비통했으며, 악의적인 선전에 속는 국민들에게 비통했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眞)·선(善)·인(忍)에 대한 믿음, 대법의 정의에 대한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네. 나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시련이며, 수련자가 마주해야 할 마난(魔難)이라는 것을 알았지. 그리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선한 마음을 지키고, 진실로 거짓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에이버리 린:

정말 끔찍한 광경이네요...

그럼 그때 아저씨께서도 공안에게 시달림을 당하셨나요?

마창성: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쳤지만, 기억 속의 심각함을 감추지는 못했다.)

그럼, 에이버리 린. 그 폭풍 속에서, 법률태법 수련자 중에 정부나 공안의 '관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나도 예외는 아니었지.

금지령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도 동네 파출소와 구(區) 공안국에 출두하라는 '초청장'을 받았네. 그들은 즉각 체포하기 위해 '소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러 오라"거나 "상황을 알아보자"는 식의 좀 더 부드러운 단어를 사용했지. 하지만 그 초청 뒤에 숨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네.

한 번은, 그들이 나를 파출소에 하루 종일 붙잡아 둔 적이 있네. 작은 사무실에 서너 명의 공안이 번갈아 들어와 '이야기'를 했지. 그들은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투로, 언제부터 법률훈을 수련했는지,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등을 묻다가, 점차 국가의 선전에 따라 법률훈의 '반동적, 미신적 성격'을 인식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쪽으로 넘어갔네. 그들은 미리 준비된 자료, 즉 중상모략하는 기사들을 내밀며, 나에게 읽고 '인식을 높이라'고 요구했지.

(그는 에이버리 린이 미리 따라놓은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말을 이었다.)

그때 내 마음은 아주 평온했네. 나는 이것이 내가 진실을 말하고, 그들이 이해하도록 할 기회라고 생각했지. 나는 그들에게 법륜공이 사람들에게 진(眞)·선(善)·인(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건강을 개선하며 도덕성을 높이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 목적도 전혀 없다고 차분히 설명했네. 나는 나 자신과 가족이 얻은 이점, 법륜공이 지역사회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지. 나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방송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중상모략이라고 말했어.

젊은 공안들 중에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 심지어는 약간의 동요를 느낄 수 있었지. 하지만 나이가 더 많거나, 아주 '입장이 확고한'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내 말을 무시하며 내가 '미혹'되고 '속았다'고 말했네. 그들은 나에게 법륜공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서적과 자료를 제출하며, 다른 수련생들과 연락하지 않고, 밖에서 연공하거나 '선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지.

나는 그들에게 말했네. "여러분, 진·선·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법륜대법은 우리에게 그 원리에 따라 살고, 더 좋은 사람, 더 건강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만약 저에게 진·선·인을 포기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법 서적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가르침이기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회유에서 협박으로 여러 가지 전술을 바꾸었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직장을 잃고, 자녀에게 영향이 갈 것이며, 심지어는 '학습 개조'를 위해 보내질 수도 있다고 말했지. 그런 협박들은, 에이버리 린, 나름의 무게가 있었네. 특히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말이야.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사부님의 가르침과, 다른 수많은 수련자들의 희생을 떠올렸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지. 나는 수련자이니, 이러한 시련들을 정직함과 선량함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두려움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악함을 더욱 기승을 부리게 할 뿐이라고.

내가 일하던 기관의 간부들이나, 동네 반장들도 '설득'하고 '권고'하라는 임무를 받고 집에 찾아오기도 했네. 어떤 사람은 기계적으로 명령을 따랐고, 어떤 사람은 난처해하며 나에게 "이 시기만 잘 넘기세요, 집에서는 수련하시되 밖에는 나가지 마시고요"라고 작게 말하기도 했지. 나는 그들의 난처함을 이해할 수 있었네.

그 '시달림'의 결과로 나는 '특별 감시 대상' 명단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를 즉시 구금하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내가 핵심 보도원이 아니었고, 내 대응 방식이 항상 온화하고 합리적이어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빌미를 주지 않았기 때문일 게야. 하지만 그때부터 삶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네.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

그것이 탄압이 막 시작되었을 때의 내 초기 경험이었네. 다른 많은 동수들이 겪어야 했던 것들 – 체포, 고문, 투옥,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것 – 에 비하면, 내가 겪은 것은 아직 가벼운 편이었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 탄압의 잔혹함과 불합리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네.

에이버리 린:

제가 읽은 정보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점점 더 긴장되어, 일부 수련생들은 천안문 광장에 가서 항의하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아저씨께서는 그 사건을 목격하셨나요?

마창성:

(깊은 슬픔이 스치는 눈빛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네, 에이버리 린. 평화적인 대화의 모든 길이 막히고, 정부에 진실을 설명하려는 모든 노력이 좌절되었을 때, 관영 매체에서 중상모략과 비방이 날로 심해지고, 점점 더 많은 동수들이 단지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구타당하며, 심지어 잔혹하게 고문당했을 때, 일부 수련생들은 천안문 광장에 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선택했네.

그것은 절망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동시에 진(眞)·선(善)·인(忍)에 대한 용기와 굳건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지. 그들은 소란을 피우거나 누군가를 타도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네. 그들은 단지 세상에, 중국 인민에게 "법륜대법은 좋습니다!(法輪大法好!)", "진·선·인은 좋습니다!(真善忍好!)"라고 말하고, 이 불합리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싶었을 뿐이야.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쓴 작은 현수막을 들고 있거나, 그저 조용히 앉아 연공을 했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상에 잠긴 듯했다.)

나도... 나도 그곳에 있었네, 에이버리 린. 몇 번인가 그랬지. 동수들이 박해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네. 그곳이 매우 위험한 장소이며, 어떤 '특이한' 행동이라도 즉시 진압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야.

한 번은, 아주 똑똑히 기억나네.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승복을 입고, 머리를 삭발한 상태였지. 출가한 후 법을 얻을 때까지, 나는 줄곧 수행자의 생활 방식과 복장을 유지해왔거든. 내가 작은 무리의 동수들과 함께 광장 근처에 막 도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경찰과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네.

그들은 달려들어 내 주변의 동수들을 아주 거칠게 밀치고 체포했네. 비명과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체포될 각오를 하고 있었어. 하지만 몇 명의 공안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중 한 명이 내 승복과 삭발한 머리를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손을 내저으며 큰 소리로 외쳤네. "이 스님은 비켜요! 스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다른 데로 가시오!" 다른 사람도 소리쳤지. "저 스님은 그냥 가게 뒤, 귀찮게 하지 말고!"

그들은 내가 그들이 탄압하는 법륜공과는 상관없는, 어느 절의 스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었네.

그 순간, 에이버리 린, 나는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꼈네. 내가 '풀려난' 것은 그들이 나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착각했기 때문이었고, 나 또한 동수들과 함께 서 있는 법륜대법 수련생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

었지. 나는 "나도 법륜공 수련생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다른 동수들이 너무 빨리 끌려갔고,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네. 나는 그곳에 서서, 끌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네.

그 시절 천안문 광경은 정말 가슴 아팠네. 평화롭고 비무장인 수련자들이, 단지 진실한 한마디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위험한 범죄자처럼 취급받았지. 그들은 구타당하고, 경찰차에 끌려 올라갔으며, 그 후에는 파출소, 구치소, 노동교양소에서 감금과 고문을 당하는 나날을 보내야 했네.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지.

그 사건들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을 때마다, 나는 이 탄압의 사악한 본질과, 자신의 자유와 생명을 대가로 치르면서까지 감히 일어나 신념과 진실을 지킨 수련생들의 위대함을 더욱 똑똑히 보게 되었네. 그들이야말로 진·선·인을 진정으로 수련하는 사람들이었지.

에이버리 린:

탄압의 끔찍한 압박 속에서, 수련 환경도 180 도 바뀌었겠네요... 그때는 어떻게 법을 공부하고 연공하셨나요? 분

명 예전처럼 공원에 나갈 수는 없었을 텐데요... 그리고 법을 널리 알리는 일도 분명 더 어려워졌을 거고요...

마창성:

(깊은 감회에 잠긴 눈빛으로 먼 곳을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네, 에이버리 린. 네 말이 정말 맞다. 공개적이고 자유로우며, 심지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시선을 받던 수련 환경에서, 우리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내몰리고, 추적당하며, 적으로 간주되었지. 수련 환경은 자네가 말한 대로 완전히, 180 도 바뀌었네.

법 공부와 연공에 대해 말하자면, 예전처럼 공원이나 공공 장소에 나가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었지. 그런 곳들은 공안과 민간 방위대원들이 지키고 있었고, 누가 연공하는 기색만 보여도 즉시 개입하고 체포했으니까.

대법 서적, 특히 『전법륜』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네. 많은 사람들이 아주 깊숙이 숨겨야만 했는데, 만약 발각되면 공안이 즉시 압수했기 때문이야. 압수된 책들은 보통 아주 불쾌한 방식으로 소각되었네. 그거 아는가, 에이버리 린, 책을 간직한 사람들은 집 안에서, 보

통은 밤이나 가장 은밀한 시간에만 감히 읽을 수 있었지. 단체 법 공부도 비밀리에 해야만 했네.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누군가의 집에 모여, 서너 명의 아주 적은 인원으로 함께 법을 읽고 깨달음을 나누었지. 그런 법 공부 시간은 더없이 귀중해졌고,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네. 많은 사람들은 법을 외우려고 노력하기도 했지. 책은 빼앗길 수 있지만, 마음속, 머릿속에 있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니까. 바로 법 속에 담긴 사부님의 가르침이 지침이 되어, 우리가 수많은 거짓과 압박 속에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었네.

연공에 대해서도, 우리는 집 안에서 해야만 했네. 보통은 아주 이른 새벽, 날이 완전히 밝기 전이나,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이웃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에게 신고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공했지. 이전처럼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던 단체 연공의 분위기는 더 이상 없었네. 각자 묵묵히, 꾸준히 해나갈 뿐이었지. 때로는, 조건이 허락하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면, 아주 가까운 몇몇 동수들이 누군가의 집에서 함께 연공하기도 했지만, 역시 지극히 조심해야만 했네.

법을 널리 알리는 것, 즉 새로운 사람에게 법률통을 소개하는 것은, 그런 환경에서는 이전처럼 공개적인 방식으로 거의 불가능했네. 하지만 그 대신,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바로 '진상을 알리는 것'이었지. 즉 법률통과 탄압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었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이해하겠는가? 왜냐하면 국가의 선전 기구가 법률통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며, 국민을 속이고, 증오심을 부추기기 위해 총력으로 가동되었기 때문이야. 만약 우리가 침묵한다면, 거짓은 더욱 퍼져나가고, 국민은 독에 중독될 것이며, 탄압은 계속될 명분을 얻게 될 것이었지.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단지 법률통의 억울함을 푸는 것뿐만 아니라, 속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이 사악한 말을 믿어 부처님의 법에 무심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했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상을 알렸을까? 주로 우리가 신뢰하는 친척, 친구, 동료, 이웃들부터 시작했네. 우리는 그들에게 법률통을 수련하면서 겪은 개인적인 체험, 건강과 정신적인 이로움, 그리고 법문의 온화하고 선을 향하는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지.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방송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네. 아주 많은 수련생들이 스스로 진상 자료를 만들었어. 그들은 자신의 저축을 털어 종이와 인쇄 잉크를 사고, 직접 타자를 치고

복사하여 거짓을 폭로하는 글, 법륵공의 아름다움과 탄압의 잔혹함에 대한 실제 이야기들을 만들었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우편함에 넣거나, 집 문틈에 끼워두거나, 공공장소에서 은밀하게 배포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의 손에 닿게 하려 애썼지. 어떤 사람은 "법륵대법은 좋습니다(法輪大法好)", "진·선·인은 좋습니다(真善忍好)"와 같은 짧은 메시지를 지폐에 써서, 그 메시지가 유통되도록 사용하기도 했네.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주 엄격한 검열에도 불구하고 포럼에 글을 올려 진실을 해외에 전파하거나, 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국내 사람들에게 알리려 했지.

에이버리 린, 그 모든 행동들은 지극히 위험했네.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체포되면, 노동교양소나 감옥에서 무거운 형량을 받고 잔혹한 고문을 당할 수도 있었지. 하지만 아주 많은 수련생들이 꾸준히 그 일을 했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의 힘을 믿었고,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자비심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것은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싸움이었네. 한쪽은 폭력과 언론이라는 모든 도구를 갖춘 거대한 탄압 기구였고, 다른 한쪽은 오직 믿음과 선량함만을 가진 맨손의 수련자들이었지. 하지만 바로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진정한 수련자

들의 신념은 더욱 단련되었고, 진정한 수련자와 세속적인 목적으로 왔던 사람의 차이 또한 더욱 명확해졌네. 불은 금을 시험하고, 고난은 의지를 시험하는 법이라네, 애야.

에이버리 린:

네, 그런 상황에서 아저씨께서는 '폭풍'을 피하기 위해 한 곳에 머물러 계실 생각이셨나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셨나요?

마창성:

(많은 사연을 담은 미소를 지으며)

한곳에 머무는 것이, 비록 임시방편으로 '안전'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은 편치 않았네, 에이버리 린. 사부님께서 중상모략당하시고, 대법이 더럽혀지며, 수많은 동수들이 고난을 겪고, 수많은 국민이 속고 있는데… 어떻게 나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우리 수련자들은 마난(魔難)이 닥쳤을 때가 바로 심성을 드러내고 법을 실증할 때라는 것을 이해하네. 피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었지.

나는 가야 한다고 생각했네. 진실이 아직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그것 또한 하나의 수련 방식이자, 내가 법을 얻었을 때 세운 서약을 실천하는 방법이었지. 게다가, 내가 여전히 전통적인 불교 수행자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했네. 방금 자네가 들었던 천안문에서의 일처럼 말이야, 비록 그것이 그들의 착각이었지만.

그래서, 잠시 마음을 다잡고 약간의 준비를 한 후, 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네. 수년간 이어진, 나라의 여러 성(省)과 시(市)를 거치는 여정이었지. 나는 그 시기를 내가 '법을 널리 알리고 진상을 알리러 다닌' 시간이라고 부르네.

그 세월 동안, 에이버리 린, 나는 평범한 사람들부터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났네. 어떤 곳에서는, 단지 짧은 시간 머물며, 접촉할 기회를 찾아 내가 법륜대법과 탄압에 대해 아는 것을 나누고는 다시 떠났지. 어떤 곳에서는, 조건이 허락하면, 조금 더 오래 머물며 작고 은밀한 법 공부 그룹을 다시 세우고, 그곳의 동수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도왔네.

나는 여전히 내 생활 방식을 유지했네. 채식을 하고, 계율을 지키며, 비록 더 이상 공식적인 사찰은 없었지만, 내 마음은 항상 수련을 향해 있었지.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들에게 진(眞)·선(善)·인(忍)의 아름다움과 법륜대법이 가져다주는 이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네. 또한 정부가 국민을 중독시키기 위해 선전하는 거짓말들을 폭로하는 것도 잊지 않았지.

물론,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네.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지. 공안에게 '조사'받거나, 미행당하거나, 심지어 체포되는 일도... 그런 환경에서는 피하기 어려운 일이었지...

(마창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말을 이었다.)

음, 자네에게 이야기해주지... 그 '법을 널리 알리고 진상을 알리던' 세월 동안, 모든 일이 천안문에서처럼 그들이 착각하고 넘어가 준 것처럼 순조롭지만은 않았네. 몇 번은, 내가 실제로 체포되어 심문과 감금을 당하기도 했지.

사실, 체포되는 것이 항상 공안에게 직접 발각되어서만은 아니었네. 때로는, 그것이 두려움이나 오해, 심지어는 내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고의적인 행동에서 비롯되기도 했지.

한 번은, 꽤 외딴 산간 지역의 한 성(省)에서 있었던 일로 기억나네. 나는 한 고요한 고찰(古刹)을 찾아갔지. 나는 그

런 청정한 곳에서는 진정한 수행자를 만나 몇 마디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곳의 주지 스님께 며칠 머물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네.

처음에, 그 주지 스님은 꽤 환대하며, 나에게 불법(佛法)과 내가 다녀온 곳들에 대해 물었네. 나도 그 기회를 빌려, 아주 신중하고 교묘하게, 그에게 법륜대법과 진·선·인 원리,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부당한 탄압에 대해 이야기했지. 나는 그가 주의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많은 부분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네. 나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던 작은 진상 자료 몇 개를 그에게 주었지.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네, 에이버리 린...

(마창성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불과 며칠 후, 내가 방에서 정좌하고 있을 때 공안이 들이닥쳤네. 그들은 내가 "불법적으로 법륜공을 선전했다"는 신고가 있었다고 직접 말했지. 그때 나는 바로 깨달았네. 그 주지 스님이, 아마도 정부가 두렵고, 자신의 사찰에 피해가 갈까 봐, 혹은 내가 말한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믿지 못해서, 몰래 공안에 신고했던 것이지.

그들에게 수갑이 채워져 끌려갈 때, 나는 주지 스님이 한 쪽 구석에 숨어서 시선을 피하는 것을 보았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네, 에이버리 린. 나는 단지 그가 불쌍했을 뿐이야. 이 말법 시기에는, 세상의 압력, 강권에 대한 두려움이, 때로는 선량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믿음보다 더 크게 작용하기도 하네.

그때, 나는 꽤 오랫동안 감금되고 심문을 받았네. 그들은 또한 회유에서 협박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내가 신념을 포기하고 다른 동수들을 밀고하도록 강요했지. 하지만 당연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네.

그것은 내가 영원히 기억하는 체포 경험 중 하나였네. 공안의 가혹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난 방식, 즉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진실을 나누려 했던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 때문이었지. 그것은 내게 사람 마음의 복잡함과, 그 특별한 환경 속에서 진상을 알리는 길의 어려움을 더욱 똑똑히 보여주었네.

에이버리 린:

제가 듣기로는 말법(末法) 시기에는 많은 사찰이 전혀 청정하지 않고, 절에 있는 승려들 중에는 진정한 수행자가 아닌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는 중공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체포되신 후에, 다른 많은 수련생들처럼 고문을 당하셨나요?

마창성:

(그의 눈빛이 가라앉으며, 깊은 사색에 잠긴 표정이 되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버리 린, 자네 말이 틀리지 않네. 이 말법 시기에는, 슬프게도 불교의 옷을 입은 곳이라고 해서 모두 예전처럼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 사찰이 때로는 이용당하고, 세속화되며, 모든 승려가 진정한 수행자인 것도 아니라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혹은 정부의 말에 미혹되어, 무심코 또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도구가 되어 불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을 하기도 하네. 그 주지 스님의 경우가 한 예이지.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네. 단지 그것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한 단면이라고 볼 뿐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에이버리 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경험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체포된 후에, 내가 다른 많은 동수들처럼 고문을 당했는지에 대해 말하자면… 에이버리 린, 자네는 알아야 하네. 이 탄압에서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단순히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전향'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수련자의 의지를 꺾고, 우리가 진(眞)·선(善)·인(忍)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고, 사부님께 등을 돌리며, 대법을 혈뜰게 만들고 싶어 했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았네.

나도 예외는 아니었네. 그 절에서 체포된 후, 나는 현지 파출소로, 그 다음에는 구치소로 이송되었지. 그곳에서의 나날들은, '시달림'이 단지 심문이나 협박에만 그치지 않았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썼네, 에이버리 린. 어떤 밤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 교대로 들어와 심문하며, 불을 환하게 켜놓았지. 그들은 정신을 쇠약하고 피곤하게 만들어 쉽게 굴복시키려 했네. 그리고 사부님과 대법을 욕하고 모욕하는 말들이 확성기를 통해, 혹은 공안들이 직접 반복해서 말하며, 일부러 자극하고 내 반응을 보려 했지.

육체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은 적지 않았네. 나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오랫동안 서 있거나 쪼그려 앉아 있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 식사는 형편없었고, 위생 상태는 끔찍했지. 어떤 때는, 내가 '협조'하지 않고, '삼서(三書, 수련 포기 각서, 회개서, 타인 고발서)'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기도 했네. 나는 몇몇 젊은 공안들에게, 아마도 공을 세우고 싶거나 선전에 선동되어서, 폭력적인 행위나 구타를 당하기도 했네.

(마창성은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비탄의 한숨이 아니라, 무거운 기억들을 털어내는 듯한 숨결이었다.)

하지만 에이버리 린, 우리 수련자들은 그런 일에 직면했을 때, 마음속에 법(法)이 있네. 나는 항상 사부님의 가르침을 되뇌며, 정념(正念)을 굳게 지키고, 두려움이나 원망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노력했네. 나는 이것이 마난(魔難)이며, 시련이라는 것을 이해했지. 그들은 내 육체를 해칠 수는 있지만, 진·선·인에 대한 내 신념을 결코 흔들 수는 없었네. 나는 또한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조차 진실을 말해주려 노력했지.

내가 아는 것들, 수많은 다른 동수들이 겪어야 했던 것들 – 훨씬 더 잔혹한 고문, 박해로 인한 장애, 심지어 노동교양

소나 감옥에서 목숨을 잃는 것 – 에 비하면, 내가 겪은 것은 아마도 아직 '가벼운' 편일지도 모르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 탄압의 잔혹함과 법률탐법 수련자들의 비범한 굳건함을 깊이 이해하기에 충분했네.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신념을 지키는 참된 제자들이었지.

에이버리 린:

네, 정말 가슴 아픈 광경이네요...

그럼 감옥에는 얼마나 오래 갇혀 계셨나요?

마창성:

(마창성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맑아졌다.)

정확하게 기억해보자면... 그 절에서 체포되었을 때, 그들이 심문하고, 감금하며, 나를 '전향'시키려고 한 후, 실제로 갇혀 있었던 기간은 대략 서너 달 정도였네, 에이버리 린.

물론 수년, 심지어는 수십 년간 감금된 다른 많은 동수들에 비하면, 내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 나는 그것이 아마도 내가 항상 정념(正念)을 굳게 지키고, 한마음으로 사부님과 법(法)을 믿으려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네. 압박과 심문을 마주했을 때도, 나는 항상 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진실을 명확히 설명하려 노력했고, 두려움이나 원망 없이 대했지. 나는 그들에게 법륜대법이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며, 진(眞)·선(善)·인(忍)은 올바르고, 이 탄압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네.

어떤 때는, 사부님의 가지(加持)를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지. 마음이 순정(純正)하고 두려움이 없으면, 사악함도 파고들 틈이 없네. 나는 수련자의 강한 정념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마난(魔難)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네.

그 서너 달 동안, 비록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짧았지만, 나 또한 그들의 온갖 수단, 즉 회유, 협박에서부터 내가 말했던 정신적, 육체적 압박의 형태까지 충분히 목격하고 경험했네. 그들은 내 신념을 흔들 수 없고, 나에게 '삼서(三書)'를 쓰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 그리고 아마도 나 같은 '늙은 스님'을 '전향'시키지 못하고 붙잡아 두는 것

이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는지, 마침내 나를 풀어주었네.

비록 서너 달에 불과했지만, 그것 또한 지극히 혹독한 수련장이었네, 에이버리 린. 그것은 내가 탄압의 본질을 더 똑똑히 보고,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 더욱 굳건해지도록 도와주었지. 그리고 자유를 얻은 후, 비록 여전히 감시와 통제를 받았지만, 나는 다시 대법 제자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 나갔네.

에이버리 린:

석방되신 후에, 그 '법을 널리 알리고 진상을 알리는' 길을 계속 가셨나요? 기억에 뚜렷이 남는 사건 몇 가지를 나눠 주실 수 있나요?

마창성:

(인자하면서도 굳건함이 빛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럼, 에이버리 린. 내가 어떻게 멈출 수 있었겠는가? 석방된 후, 비록 내가 여전히 그들의 '감시망'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대법 제자로서의 책임감, 사부님과 대법이 중상

모락당하고 수많은 국민이 여전히 속고 있는 것을 보는 고통이, 나를 계속 나아가게 했네. 그곳에서의 시간은 나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똑똑히 깨닫게 해주었지.

나의 '법을 널리 알리고 진상을 알리는' 길은 다시 계속되었네. 아마도 이전보다 더 신중해졌지만,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지.

기억에 남는 사건들에 대해 말하자면... 아주 많다네, 에이 버리 린. 모든 만남, 내가 나눌 기회가 있었던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이야기였지.

한 번은, 내가 꽤 외딴 농촌 지역에 갔을 때가 기억나는군. 그곳은 정보가 심하게 통제되어, 사람들은 대부분 텔레비전의 부정적인 선전을 통해서만 법륜공을 알고 있었네. 나는 한 농가에 접근했는데, 그 집에는 중병에 걸린 아들이 있었고, 여러 곳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아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웠지. 나는 그들이 아주 선량하고 순박하다고 느꼈네.

처음에, 내가 조심스럽게 법륜공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손사래를 치고, 그것은 국가에서 금지한 '사교'라고 말했네. 나는 서두르지 않고, 단지 내 이야기

를,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수련을 통해 얻은 이점과 탄압의 진실을 이야기할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청했네. 나는 그들에게 진(眞)·선(善)·인(忍) 원리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

나는 그들 집에 며칠 머물며,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와주고,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네. 점차, 그들은 내가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들은 듣기 시작했고, 질문을 했네. 나는 내가 조심스럽게 가지고 다니던 작은 진상 자료 몇 개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지.

셋째 날, 침대에 누워만 있던 그들의 아들이, 갑자기 몸이 좀 나아진 것 같다며 일어나 앉고 싶다고 했네. 온 가족이 매우 놀라고 기뻐했지. 나는 그들에게,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마음이 대법에 대해 선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일 수 있으며, 부처님의 법은 무변(無邊)하여,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신불(神佛)께서 보실 것이라고 말했네. 나는 또한 그들에게 "법륜대법은 좋습니다(法輪大法好), 진·선·인은 좋습니다(眞善忍好)"라고 조용히 외워보라고 안내했지.

내가 떠날 때, 온 가족이 나를 마을 어귀까지 배웅했고, 그들의 눈빛은 감사와 존경으로 가득했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는 텔레비전의 중상모략을 믿지 않겠다고 말했지. 나는 그들이 나중에 수련의 길에 들어섰는지는 모르지만, 선량함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졌다고 믿네. 나에게 있어, 그것은 큰 기쁨이자, 이 험난한 길 위에서의 격려였지.

다른 때도 있었네. 내가 시장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 작은 안내문을 붙일 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심지어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그럴 때, 나는 항상 평정을 유지하고, 선의로 설명하려 노력했으며, 만약 그들이 듣지 않으면, 다투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네.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이었지.

그 여정 동안, 나는 또한 여러 사찰과 도관의 수행자들을 많이 만났네. 모두가 나를 공안에 신고했던 그 주지 스님 같지는 않았지. 비록 그들이 법륜대법이나 탄압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진정으로 도를 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네. 그리고 바로 그 만남들 속에서, 시국과 수련의 길에 대해 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 대화들이 있었네...

에이버리 린:

그럼 법을 널리 알리는 여정이 순탄했나요? 대법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나요? 제가 듣기로는, 절에서 수련하는 많은 스님들은 경전을 많이 읽어서 자신들이 이미 많은 법리를 깨달았다고 느끼신대요...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하거나 깨달음을 나누기가 매우 어려운, 일종의 우월감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요...

마창성:

(온화하면서도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미소를 지으며)

'순탄했다'는 그 여정을 묘사하기에 꼭 맞는 단어는 아닐 걸세, 에이버리 린. 한 걸음 한 걸음이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만 했지. 하지만 인연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말한다면, 그래, 적지 않게 만났네.

'인연'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막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마자, 대법의 진실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기꺼이 귀를 기울이며 더 알아보려 했네. 그런 사람들은 근기(根基)가 좋은 사람들로, 아마도 오랫동안 이

것을 기다려왔을 게야. 내가 방금 말한 그 농부 가족이 한 예이지.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으로 가득 차고 심지어 반대했지만, 내가 끈기 있게 선한 마음으로 진실을 명확히 설명하자, 점차 태도를 바꾸었네. 즉시 믿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거짓 선전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게 되었지. 그들의 마음에 선한 생각의 씨앗 하나를 심는 것, 나에게는 그것 또한 하나의 성공이었네.

그리고 자네가 말한 절의 스님들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은 꽤 특별한 상황이었고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볍게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자네 말이 아주 일리가 있네, 에이버리 린. 많은 스님들은 평생을 경전 연구에 바치고, 자신의 문파 계율을 따르며 살아왔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배운 법리와, 그들 자신의 수행 경험이,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부가 되었네. 그들이 자신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느끼고, 수행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게 되었을 때, 새로운 법문, 새

로운 인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때로는 큰 시련이 되기도 하네.

자네가 말한 그 '우월감'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네. 아마도 자신의 지식에 대한 집착에서, 즉 자신이 아는 것이 이미 최고라고 생각하는 데서 올 수도 있지.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에 익숙해져, 자신이 전혀 몰랐던 사람으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것을 듣기 위해 자신을 낮추기 어려워서일 수도 있네. 또한, 이 말법 시기에는, 많은 수행자들이 비록 가사를 입고 많은 경전을 읽지만, 실질적인 수련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고, 진정으로 도를 구하는 마음이 세속적인 것들에 의해 빛이 바랬을 수도 있네. 그들은 법리에 대해 아주 잘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의 현재 이해를 넘어서는 것들을 받아들일 겸손함과 열린 마음이 부족할 수 있지.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에이버리 린, 나는 결코 옳고 그름을 논쟁하거나, 내 법이 더 높다고 증명하려 하지 않았네. 나는 단지 가장 진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누려 노력할 뿐이었지. 나는 법륜대법을 얻었을 때의 내 자신의 체험, 즉 신체와 정신 양면의 승화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네. 나는 진(眞)·선(善)·인(忍) 원리를 어떤 진정한 수행자라도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로서 이야기하곤 했네. 기회가

된다면, 말법 시대의 배경, 그리고 그들 자신도 아마 느낄 수 있는 수행계의 더 이상 순수하지 않은 현상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하곤 했지.

어떤 분들은, 그저 조용히 듣기만 하고 아무런 태도도 보이지 않았네.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거나, 심지어는 반박하기도 했지. 나는 각자 인연과 깨닫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네. 나는 단지 인연을 심을 수 있을 뿐, 그들이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그들의 선택이었지.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네. 나는 또한 진정으로 도를 구하는 마음을 가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은 몇몇 스님들을 만나기도 했네. 그리고 그중에서, 한 번은, 내가 한 고찰의 주지 스님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네. 우리는 말법 시대, 오늘날 수련의 어려움, 그리고 각자의 깨달음에 따른 '불이법문(不二法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했지... 그 만남은 나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었네.

에이버리 린:

네, 그 주지 스님과의 만남에 대해 나눠주실 수 있나요? 만약 아직 뚜렷이 기억하신다면요...

마창성: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빛은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먼 기억의 한 자락을 향하는 듯했다.)

물론이지, 에이버리 린. 그 만남은, 지금까지도 아주 뚜렷하게 기억나네. 어느 날 오후, 내가 언덕 비탈에 자리 잡은 꽤 외딴 고찰(古刹)에 들렀을 때였지. 그곳의 주지 스님은, 내가 짐작하기에, 이미 칠십을 넘기셨고, 풍채가 좋으시며 인자한 얼굴을 하고 계셨네.

허락을 받고 하룻밤 묵게 된 후, 우리는 함께 앉아 차를 마셨네. 그분의 방은, 그거 아는가, 에이버리 린, 온갖 종류의 경전으로 가득 차 있었어. 정통 불교 경전도 있었고, 도가(道家)의 서적도 있었으며, 심지어 다른 종교의 책 몇 권과 민간 경전, 예를 들어 '왕모낭낭경(王母娘娘經)' 같은 책도 보였지... 그분은 자신의 박식함에 대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듯 보였고, 자신이 아주 많은 법문과 교리를 연구했다고 말했네.

그분은 세상이 혼란하고, 사람의 도덕이 쇠퇴하며, 수행자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탄했네. 자신이 그렇게 많이 공부하려 애쓰는 것도 중생의 고통을 덜어줄 길을 찾기 위함이라고 말했지. 하지만 그분의 말씀 속에서, 나는 그분이 애써 감추려 했지만, 어딘가 모를 막연함과 불확실함을 느낄 수 있었네.

그분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나도 그분께 말법(末法) 시대에 대한 나의 깨달음을 나누었네. 나는 단지 도덕이 쇠퇴한 것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정통 경전이 점점 실전(失傳)되어 깨닫기 어려워지고, 후세 사람들이 개인적인 참고 깨달음에 근거하여 쓴 경전들은 비록 더 이해하기 쉬워 보이지만, 원래의 깊이와 의미에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말했지. 사람들은 그런 피상적인 이해에 빠져 자신이 이미 도를 얻었다고 착각하기 쉽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내가 그분께 말하길, 옛날에 세상에 내려와 법을 전하신 신불(神佛)들의 법 또한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네. 이 말법 시대에 이르러, 많은 법문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효험이 없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구도할 에너지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 법을 전하신 깨달은 분들의 '임기'가 이미 끝났기 때문이라고. 마치 임기가 끝난 대통령

이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권력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지. 지금은 중생이 새로운 참된 법(眞法), 즉 경전에서 늘 언급되는 미륵불(彌勒佛)과 같은 미래의 부처님께서 세상에 내려와 구도해주시기를 기다리는 때라고.

그분의 방이 온갖 경전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나도 조심스럽게 '불이법문(不二法門)'에 대한 나의 깨달음을 나누었네. 나는 알아보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련, 특히 해탈에 이르기 위한 수련에서는 전일(專一)함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했지. 나는 그분께, 우리 수련자들은 심성을 수련하고 법리를 깨닫는 것 외에도, '덕(德)'을 '공(功)'으로 연화(演化)시킬 '덕'이 필요하다고 말했네. 모든 진정한 법문에는 사부님께서 제자의 '덕'을 '공'으로 연화시켜 주시는 고유한 기제(機制)가 있다고. 만약 어떤 사람이 일정한 양의 '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 법문에 나누어 여러 길로 수련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마치 집 한 채 지을 돈밖에 없으면서 동시에 여러 채의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결국 어느 집 하나도 완성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지. 그분께서 정통이 아닌 경전들까지 너무 많은 것을 읽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고, 에너지를 집중시키지 못하게 하며, 그 법문의 사부님께서도 (만약 그분이 따르는 주된 법문이 있다면) 그분이 진정으로

향상되도록 돕기 어려울 수 있다고. 그것이, 보이지 않게, 바로 수련에서의 '불이법문' 원리를 어킨 것이라고 말했네.

주지 스님은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네, 에이버리 린. 나는 그분의 얼굴에서 놀라움, 그리고 사색을 보았지. 아마도 내가 한 말이 그분이 자신의 수행 과정에서 느끼면서도 설명할 수 없었던 고민과 막막함을 건드렸을 게야. 그분은 반박하지 않고, 단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눈빛에는 더 이상 처음의 자신감이 아니라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네.

그 대화가 끝난 후, 내가 떠나기 전에, 나는 그분께 『전법륜』 한 권을 남겨드렸네. 나는 단지, 이것은 우리 사부님께서 우주, 인생, 그리고 말법 시대의 수련의 길에 대해 하신 말씀이니, 만약 주지 스님께서 인연이 있으시면, 부디 읽어보시고 스스로 깊이 생각해보시라고만 말했지. 나는 그분이 책을 받아드는 것을 보았는데, 두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고, 나를 보는 눈빛에는 조용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네.

나는 그 후에 그 주지 스님께서 정말로 대법 수련의 길에 들어서셨는지는 모르네, 에이버리 린. 그것은 그분의 인연과 선택에 달려있겠지. 하지만 나는 그 대화와, 그 대법 서적이, 그분의 마음에 하나의 씨앗을 심었다고 믿네. 적어

도, 그것이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수행의 길, 이 특별한 시기 수련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을 테니까.

에이버리 린:

그런 일들은, 적어도 아저씨께서 좋은 인연 하나를 심으신 셈이네요...

아저씨의 그 법을 널리 알리고 진상을 알리는 여정은 분명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이전의 삼십 년간 법을 찾던 여정과와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을 거라고 느껴져요...

마창성:

(깊은 이해가 담긴 미소를 지으며)

에이버리 린이 아주 정확하게 말했네. 그 두 여정은, 비록 둘 다 걷고, 찾고, 나누는 것이었지만, 마음가짐은 하늘과 땅 차이였지.

이전의 삼십 년간 법을 찾던 여정은,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며 더듬어 나가는 한 사람의 여정이었네. 나는 스승을

찾아 나선 제자의 마음으로, 생명의 의미와 해탈의 길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고뇌를 안고 길을 떠났지. 고승이나 도사로 알려진 분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에는 희망이 솟아 났다가, 내가 찾던 것이 아니라고 느꼈을 때는 다시 실망하기도 했지. 그것은 때로는 막막하고, 외로운, 탐구의 여정이었으며, 주된 목적은 나 자신을, 나 자신의 해탈을 위한 것이었네. 거절당했을 때 슬프고 좌절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안배였고, 내가 훗날 참된 법(眞法)을 '순수한'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보이지 않는 보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후반기를 이야기하며 눈빛이 빛났다.)

하지만 훗날의 십육 년간의 "법을 널리 알리고 진상을 알리는" 여정은, 내가 이미 빛을 찾았고, 손에 참된 법을 쥐고 있으며, 사부님께서 길을 이끌어 주실 때였네. 이때의 마음가짐은 더 이상 찾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사람의 것이었지.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을 위해, 여전히 속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에게 진실과 희망을 가져다주기 위해 길을 떠났네.

첫째, 목적이 달랐네. 이전에는 "나를 위해 찾는 것"이었고, 훗날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것"이었지.

둘째, 마음가짐이 달랐네. 이전에는 막막함, 걱정, 불확실함이 있을 수 있었지. 훗날에는, 비록 위험, 체포, 고문을 마주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굳건함과 평온함이 있었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가장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법(法)이 나의 의지처가 되어주었기 때문이야. 더 이상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사람의 두려움이 아니라, 등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굳건함이었지.

셋째, 내적인 힘이 달랐네. 이전에는, 힘이 주로 개인적인 의지와 갈망에서 나왔지. 훗날에는, 힘이 대법에서, 사부님의 가지(加持)에서, 진(眞)·선(善)·인(忍)에 대한 믿음에서 나왔네. 그것은 나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무한한 힘이었지.

그리고 넷째, 대상이 달랐네. 이전에는, 나는 '스승'들을 찾아다녔지. 훗날에는, 나는 일반 대중,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수행자들을 찾아가 진실을 나누었네.

물론 훗날의 여정이 외부 환경적인 면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훨씬 더 위험했지. 하지만 에이버리 린, 마음속에 법이 있고, 중생을 구도하고자 하는 자비심이 있을 때, 그 고난들은 오히려 내가 심성을 향상시키고, 정법(正法) 시기 대법 제자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시련이 되네. 마난(魔難) 하나를 넘어설 때마다, 한 사람이라도 진

실을 이해하도록 도울 때마다, 마음속의 기쁨과 평온함은 더욱 커졌지.

그것은 더 이상 찾는 자의 외로움이 아니라, 보물을 찾아 나누는 자의 행복이었네. 비록 육신은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정신은 항상 충만하고 의미 있었지.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였다네, 에이버리 린.

에이버리 린:

그럼 이번 여정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나요? 아저씨께서 홍콩과 대만에도 가셨던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마창성:

(긴 세월을 품은 듯 먼 곳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네, 에이버리 린. 나의 이 "법을 널리 알리고 진상을 알리는" 여정은, 탄압이 시작된 때부터 내가 최근에 중국 대륙을 떠날 때까지, 대략 십육 년 정도 계속되었네. 그 십육 년 동안, 항상 계속해서 이동한 것은 아니었네. 때로는 비교적 은밀한 곳을 찾아 숨어 지내며, 한동안 법을 배우고 마음을 고요히 한 후, 다시 계속 나아가기도 했지.

그리고 자네가 들은 것이 맞네. 그 십육 년의 기간 동안, 내가 홍콩과 대만에 갔던 시기도 있었지.

(그는 그 특별했던 시절을 회상하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자네도 알다시피, 당시 홍콩은 비록 중국에 반환되었지만,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에 따라 여전히 어느 정도의 자유를 유지하고 있었네. 그곳은 대륙에서의 탄압에 대한 진실이 세계에 폭로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였고, 또한 많은 대륙 사람들이 국내에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을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었지. 내가 홍콩에 간 것도, 그곳에서 진상을 알리는 일에, 특히 여행이나 업무차 대륙에서 온 동포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기 때문일세.

그리고 대만은, 또 완전히 다른 곳이었네. 그곳에서는, 법륜대법이 자유롭게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었지. 대만 사람들은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 가치를 아주 많이 보존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대륙에서는 수많은 정치 운동 끝에 거의 다 파괴된 것들이었네. 내가 대만에 간 것은,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대법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곳의 동수들로부터 경험을 배우기 위함이었고, 또한 대륙에서의 위험과 마주했던

세월 끝에 잠시나마 조용히 수련하며 자신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함이기도 했네.

홍콩과 대만에서의 나날들도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았네, 에이버리 린. 각 장소마다 다른 경험과 만남들이 있었고, 그것은 내가 이 시기 대법 제자의 수련의 길과 사명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었지.

에이버리 린:

그럼 아저씨께서 중국을 떠나실 때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제가 듣기로는 다른 수련생들이 중국을 떠나고 싶어 할 때 매우 어려워서, 많은 경우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외교적 개입에 의해서만 출국할 수 있었다고 하던데요...

마창성:

(동포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생각하며 눈가에 한 줄기 우수가 스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말이 아주 맞네, 에이버리 린. 법륜공 수련생들이 중국 대륙을 떠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지극히 어려운 일이지. 그들의 통제 시스

템은 아주 엄격하네. 그들이 이름과 얼굴을 아는 대부분의 수련자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출국이 금지되어 있지. 많은 사람들의 여권이 압수되거나, 신규 발급이나 갱신이 되지 않네. 자네가 다른 나라의 외교적 개입으로 일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들은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운이 좋은 경우이며, 보통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었지.

그리고 나의 경우는… 아마도 좀 특별했고, 또한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마치 안배가 있었던 것 같은 일들도 있었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평온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오랫동안 국내를 '떠돌아다니며'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네. 아마도 그래서, 그들이 내 행적을 면밀히 추적하는 것이 고정된 주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 더 어려웠을 게야.

출국에 관해서는, 나는 이전부터 내 여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네. 그것은 하나의 행운이었지. 내가 해외로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 한편으로는 더 좋은 수련 환경을 갖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세계에 진상을 알리고 이 탄압을

폭로하는 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 나는 평범한 사람처럼 수속을 밟았네.

출국장에서, 세관 직원이 내 지문을 스캔하고 여권을 대조할 때, 나는 그들의 시스템에 분명히 나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알았네. 그때 내 심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뛰었지만, 나는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정념(正念)을 강하게 하려 노력했지. 나는 모든 일은 사부님께서 안배하시니, 나는 그저 당당하게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네, 에이버리 린. 시스템에 정보가 뜬 후, 그 세관 직원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네. 나는 두려움 없이,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 오직 수련자의 평온함, 자비, 그리고 약간의 위엄만이 있었을 뿐이야. 그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는데, 나는 그의 눈빛에서 놀라움, 무언가 멈칫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아주 미세한 변화를 보았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질문도 더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내 여권에 도장을 찍고는 돌려주었네. 그들은 제지하거나 까다롭게 구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지.

나는 그 순간, 수련자의 정념, 자비롭고 올바른 에너지장이 작용하여, 그 직원의 양심과 선한 마음을 일깨웠거나, 적어도 그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게 만들었다

고 믿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그것이 사부님의 안배였고, 나를 위해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이해하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비교적 '평범하게' 중국을 떠날 수 있었네. 비록 그것이 다른 많은 동수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야. 그 점이 나로 하여금 이 기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고, 내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들었지.

에이버리 린:

그 세관에서의 경험은 정말 수련자의 마음가짐과 대법의 위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네요...

그럼 아저씨께서 홍콩과 대만에 계시는 동안, 그곳의 동수들과 함께 어떤 활동에 참여하셨나요? 인상 깊어서 아직도 뚜렷이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마창성:

(그 시절을 떠올리며 기쁨과 소중함이 빛나는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아, 그럼, 에이버리 린. 홍콩과 대만에서의 나날들은, 비록 대륙에서의 시간만큼 길지는 않았지만, 또한 더없이 의미 있었네. 그곳에서, 나는 대륙에서는 그저 꿈꿀 수밖에 없었던,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동수들의 활동에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었지.

홍콩에서:

자네도 알다시피, 홍콩은 아주 특별한 곳이지. 그것은 마치 관문이자 교차점 같았네. 홍콩의 동수들은 대륙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역할을 아주 잘 해내고 있었지. 나도 종종 유명한 관광지의 진상 알림 장소에서 그들과 함께 참여했네. 대륙에서 온 동포들이, 처음에는 경계하고 두려워하다가, 점차 현수막과 탄압에 대한 생생한 사진들, 그리고 수련생들의 온화하고 끈기 있는 모습에 이끌리는 것을 보았네... 많은 사람들이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자료를 받아 갔으며,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삼퇴(三退,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를 하는 사람도 있었네. 그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나는 그들이 거짓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아주 구체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네.

공개 활동에 대해서는, 내가 그곳에 있었던 2016-2017 년경, 홍콩의 상황은 점점 더 긴장되었고, 중공의 압박은 더

욱 심해졌네. 박해 초기의 몇 년처럼 아주 대규모의 행진을 조직하는 것은 아마도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게야.

하지만 홍콩의 동수들은 여전히 지극히 굳건하고 창의적이었네. 그들은 비록 규모가 예전처럼 '크지' 않거나, 상황에 맞게 형식이 조금 바뀌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공개 활동을 조직했지. 그것은 집회, 촛불 추모식, 또는 규모는 좀 더 작아졌지만 여전히 아주 장엄하고 평화롭게 도심을 지나며 대중과 관광객의 주목을 끄는 행진단일 수 있었네. 그들은 여전히 현수막을 높이 들었고, 천국악단(天國樂團, Tian Guo Marching Band)도 있었지 (비록 참여 인원수는 더 제한적이었을지라도).

나에게는, 비록 규모가 이전의 영웅적인 사진들처럼 '수천, 수만 명'은 아니었을지라도, 점점 더 숨 막히는 상황 속에서 홍콩 동수들의 어떤 공개 활동이든 목격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더없이 귀하고 인상적인 일이었네. 그것은 강권 앞에서 비범한 용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지. 나는 몇 차례의 평화적인 청원이나, 좀 더 작은 규모의 행진에 참여했던 것을 기억하네. 비록 참여 인원이 예전 같지는 않았을지라도, 평화로움, 질서, 그리고 진(眞)·선(善)·인(忍)과 박해 중단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는 여전히 아주 명확하게 표현되었네. 그리고 더 중

요한 것은, 그것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 특히 그런 광경을 처음 보는 대륙 관광객들에게는 충격이자 각성이었다는 점일세.

그리고 대만에서:

대만에 갔을 때는 느낌이 더욱 달랐네. 그곳에서는 법륜대법이 자유롭게 발전하고, 정부와 국민에게 존중받고 있었지. 수련생 수도 아주 많았어. 나는 수백 명에 이르는 대규모 단체 법 공부 모임에 참여하여, 개방적이고 진솔하게 수련 깨달음을 나눌 기회가 있었네.

나를 지극히 감동시키고 영원히 기억하게 만든 것은, 대규모의 법회(法會, Fa Conference)와 글자 만들기(排字, character formation) 행사에 참여했던 것이었네. 에이버리 린도 아마 그 사진들을 본 적이 있을 걸세. 수천 명의 수련생들이, 단정한 연공복 차림으로, 평화롭고 질서 있게 정좌하여 사부님의 형상, 법륜 도형, 또는 '진·선·인' 글자와 같은 신성한 의미를 담은 거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지. 내가 그 인파의 일부가 되어, 자비롭고 평화로운 에너지장이 온통 뒤덮는 것을 느끼고, 동수들의 한마음과 경건함을 보았을 때, 나는 진정으로 대법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네. 그것은 법륜대법이 널리 전파되는 생생한

그림이었고, 대륙의 탄압과 박해 광경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지.

나는 또한 많은 대륙 관광객이 찾는 대만의 관광지에서 몇몇 진상 알리기 활동에도 참여했네. 법륜공에 대한 대만 국민들의 개방성과 지지 또한 나를 아주 감동시킨 점이었지.

홍콩과 대만에서의 경험들은, 에이버리 린, 내 시야를 넓혀주고 해외 동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믿음과 힘을 더해주었다는 점일세. 나는 대륙에서 탄압이 아무리 잔혹하더라도, 밖에서는 진·선·인이 여전히 퍼져나가고, 대법의 빛이 여전히 비추고 있다는 것을 보았네. 그리고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결국에는, 선량함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에이버리 린:

대만 분위기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곳 뉴욕에서 수련생들이 주최하는 웅장한 활동들과 비슷한 분위기일 거라고 느낄 수 있어요...

오늘도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요. 어제보다 조금 늦었고요...

미국에 오시게 된 인연과, 중생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나눠주시겠어요?

마창성:

(에이버리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네, 에이버리 린. 자유롭고 규모가 큰 대만에서의 활동들은, 정말 이곳 뉴욕의 동수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와 유사한 점이 있지. 그것들은 모두 대법이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이자, 고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는 강렬한 대조를 이루지.

자네 말이 맞네, 벌써 늦었구나. 우리도 꽤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다가, 차분하지만 평온한 표정으로 에이버리를 다시 돌아보았다.)

미국에 오게 된 인연에 대해 말하자면... 홍콩과 대만에서의 세월을 보낸 후, 나는 내 사명이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 진실이 전 세계의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곳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네. 자네도 알다시피, 이곳 뉴욕은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지. 그리고 이곳의 동수들 또한 진상을 알리고 탄압을 폭로하기 위해 아주 많은 큰일들을 하고 있네.

이곳에 오게 된 것도, 나는 사부님의 안배라고 여기네. 중국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지. 나는 단지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 즉 내가 가야 할 곳에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을 품고 있었네. 그러자 길이 저절로 열렸지.

(그는 가볍게 미소 지었고, 당부의 말을 할 때 그의 목소리는 더욱 간절해졌다.)

만약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특히 이 특별한 시기의 중생들에게, 그리고 특히 자네와 같은 젊은이들에게...

우선, 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민족이든, 법륜대법과 중국 공산당의 잔혹한 탄압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려 노력하기를 바라네. 일방적인 선전, 왜곡된 정보를 선불리 믿지 말게나. 진(眞)·선(善)·인(忍)은 아름다운 보편적 가치이며, 인류 도덕의 기초라네. 사람들에게

진·선·인에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수백만 명에게 건강과 평화를 가져다준 법문이 결코 '사교'일 수는 없네. 자신의 양심으로 판단하게나.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자네들이 세상의 미래라네. 이 시대에, 자네들은 아주 많은 물질적 유혹과 혼란스러운 정보들에 직면해야 하지. 피상적인 유행에 휩쓸려 핵심적인 정신적 가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기 아주 쉽네.

나는 자네들이 선량함을 소중히 여기고, 도덕을 굳게 지키기를 바라네.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면, 군종과 반대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용감하게 진실을 찾고, 거짓에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등불이 있으니, 그것이 자네들이 가는 길을 비추게 하게.

세계는 지금 거대한 변동의 시기를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말법(末法) 시대, 인류가 마주해야 할 시련에 대해 이야기하지. 하지만 위기 속에는 항상 희망이 있네. 나는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지키고 정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할 때,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네.

법륜대법은 나와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져다주었고, 내면의 평온과 진정한

수련의 길을 가져다주었네. 만약 인연이 닿는다면, 자네들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네. 그것은 아마도 큰 복이 될 걸세.

인간의 생명은 지극히 귀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그것을 무의미한 것들에 낭비하지 말게. 가치 있게 살고, 목적을 가지고 살며, 후세를 위해 좋은 것들을 남기게나.

(마창성은 애정과 희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에이버리 린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아마도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네, 에이버리 린. 이 늙은이의 이야기를 끝기 있게 들어주어서 고맙네.

에이버리 린:

네,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께서 방금 "인간의 생명은 지극히 귀중하다"고 하신 말씀을 들으니, "인신난득(人身難得), 중토난생(中土難生), 정법난문(正法難聞), 명사난우(明師難遇)"라는 구절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이 잘되시길 빌어요!

마창성:

(에이버리 린이 그 구절을 다시 언급하는 것을 듣고,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공감과 소중함이 빛났다.)

에이버리 린, 정말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말을 하는구나. "인신난득(人身難得), 중토난생(中土難生), 정법난구(正法難求), 명사난우(明師難遇)." (사람 몸 얻기 어렵고, 중토에 태어나기 어려우며, 바른 법 구하기 어렵고, 밝은 스승 만나기 어렵다네.)

정말 그렇다마다. 그 구절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하나의 거대한 진실이자, 인생의 기원이 얼마나 드물고 귀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이네.

(그는 에이버리 린을 만족스럽고 칭찬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 자신도, 수많은 세월을 찾아 헤매고, 수많은 부침을 겪은 후에야, 이 말들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네. 바로 "사람 몸 얻기 어렵기"에 우리는 이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하고, 바로 "바른 법 구하기 어렵고, 밝은 스

승 만나기 어렵기"에, 인연이 닿아 만났을 때 우리는 더욱
굳건히, 소중히 여기며 정진하여 수련해야만 하네.

자네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니, 아주 기쁘구나.

다시 한번, 시간을 내어 들어주어서 고맙네, 에이버리 린.
자네 또한 항상 선한 마음과 지혜를 지키고, 자네의 길 위
에서 많은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네. 모든 일이 잘되기를.

* * *

맺음말

마 아저씨와 함께한 나흘간의 오후는 긴 꿈처럼 흘러갔다. 마지막 대화가 끝났을 때, 어둠은 이미 산을 뒤덮고 있었다. 아저씨는 나를 문지방까지 배웅해주셨다. 밤은 고요했고, 오직 낭랑한 벌레 소리와 작은 집에서 새어 나오는 따뜻한 노란 불빛만이 있었다. 나는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인생의 한 갑자(甲子)를 거의 다 돌아온 수행자,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평온했다.

아저씨의 이야기들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삼십 년간의 기나긴 구도의 여정, 참된 법(眞法)을 찾았을 때의 벅찬 순간, 평화로웠던 수련의 세월과 뒤이은 탄압의 폭풍, 그리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굳건함까지.

아저씨의 이야기에는 거창한 미사여구나, 비난 혹은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의 믿음을 찾고 지켜온 한 사람의, 진실하고 소박한 기억의 흐름일 뿐이었다. 그것은 진(眞)·선(善)·인(忍)에 대한

믿음, 아마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믿음이었다.

마 아저씨의 집을 떠나 익숙한 산길을 내려오며, 나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문득, 마 아저씨의 여정이 단지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곳곳이 선량함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인생의 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묵묵히 찾아 헤매는 이 시대 수많은 다른 생명들의 축소판이었다.

이 책은 여기서 맺지만, 우리 각자의 여정은 여전히 앞에 놓여 있다. 바라건대, 앞서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어, 자신만의 진실과 의미를 찾아 나선 길 위에 선 모든 이에게 한 줌의 온기와 약간의 용기를 더해줄 수 있기를.

에이버리 린

THE LIVES MEDIA

저자 및 THE LIVES MEDIA 프로젝트에 대하여

저자 소개

에이버리 린 (Avery Lin) 은 정치, 문화, 사회, 과학, 영상 등의 주제를 탐구하는 독립 작가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진리를 추구하고 양심을 일깨우며, 인류의 운명에 대한 깊은 성찰에 목소리를 부여합니다.

그녀의 작업은 종종 실제 인터뷰에서 출발하며, 정직함과 감정적 깊이, 그리고 깨달음의 정신으로 기록됩니다..

프로젝트 소개

이 책은 THE LIVES MEDIA 에서 출판한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THE LIVES MEDIA 는 시대를 초월하는 메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글로벌 비전의 독립 출

판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매일의 뉴스를 쫓기보다는 인간의 의식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는 책을 지향합니다.

연락처

- ✧ Website: www.thelivesmedia.com
- ✧ Email: editor@thelivesmedia.com
- ✧ QR Code:



같은 프로젝트의 다른 작품들

THE LIVES MEDIA 의 다른 출판물들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홍진 · 금광 (Red Dust, Golden Light)

- 권력 그 후: 유산 (After Power: The Legacy)
 - 과학의 황혼과 여명 (Sunset and Sunrise of Science)
 - 붉은 베일 (The Red Veil)
 - 시간 이전의 울림 (Echoes Before Time)
 - 속세로 (Entering The World) → 바로 이 책입니다
 - 마지막 종소리 (The Last Bells)
 - 우리 이전 (Before Us)
 - 천 개의 삶 (Thousand Lives)
-

이 책을 읽기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리를 탐험하는 당신의 여정에 신과 부처님의 가호가 있
기를 바랍니다.